朝鮮日報
夕刊 三十一日(金)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株式會社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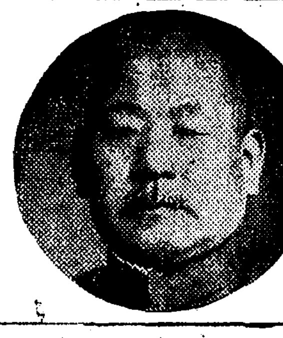
元旦·宮中의御儀

畏嚴에 豐實스러어 마지 않는 昭和第十三春의 大內에 瑞祥이 充滿한 平和스러운元旦、陛下께옵서는 未明 四方拜의 御儀를 行하옵신다 黃櫨染御袍의 御束帶로 御姿를儼하옵신 天皇陛下께옵서는 午前五時半 賢所神嘉殿南庭에 出御、[illegible]한 가운데 御笏을 正히하옵시고 伊勢神宮을 御遙拜、다음은 [illegible]陵、多摩御陵을 御遙拜하옵시고 各山陵、天神地祇를 御遙拜、皇祚의 隆昌、帝國의 和平을 御祈念하옵신다고 承聞되옵은 恐懼不已이다

다음午前五時四十分賢所、皇靈殿、神殿에서도 御親拜、歲旦祭의御儀를 行하옵신다 如斯히하사 陛下께옵서는 御正裝을 御召替、午前八時鳳凰間에 出御 新春을 祝賀하옵시는 御膳의 御儀가 께옵서는 大宮에서는 皇后陛下 皇子殿下와 [illegible]等을 御招하옵시고 大宮의 新饗을 御招하옵시는데 또 午前十時 天皇陛下께옵서는 御正裝으로 各種勳章御佩用 皇后陛下께옵서는 만토-·도·쿨의 御洋裝으로 [illegible]으로부터 選擇한 公爵御裳을 捧持하옵서고 鳳凰間에 出御、秩父宮、高松宮兩殿、三笠宮各殿下를 奉始하와 御在京各皇族에 御對面 年頭의 御祝詞를 바드옵시고 다음正殿에出御 近衛首相以下文武顯官等의 拜賀를 受하옵시다 午前十一時 再次 正殿에 出御 諸臣의 拜賀를 受하옵시고 午後一時半 三次出御 [illegible]大使以下各國大公使同夫人等의 拜賀가 잇슨後 [illegible]스러이 御多忙하옵신一日을 지나시압실터이다

皇國臣民ノ誓詞
（其ノ一）
一、私共ハ大日本帝國ノ臣民デアリマス
二、私共ハ心ヲ合セテ天皇陛下ニ忠義ヲ盡シマス
三、私共ハ忍苦鍛鍊シテ立派ナ强イ國民トナリマス
（其ノ二）
一、我等ハ皇國臣民ナリ忠誠以テ君國ニ報ゼン
二、我等皇國臣民ハ互ニ信愛協力シ以テ團結ヲ固クセン
三、我等皇國臣民ハ忍苦鍛鍊力ヲ養ヒ以テ皇道ヲ宣揚セン

朝鮮使命重大
覺悟를새롭게하라
朝鮮總督 南次郞



坤輿一轉、軍國多事에 新春을 마지함에際하야 半島內同胞와함께 聖壽의無窮을 祈禱하고 皇運의 隆昌을奉頌한다

昨夏에發生한 支那事變은 바야흐로 半歲를經하야 [illegible]에達하엿다 陸海萬里의 異域에 干戈를들고이러선 皇軍將兵의辛苦、家鄕에 征士의 武運을祈禱하는人士의 心情을생각하면 年頭에特히 感慨無量하바를 깨닷는다。

勿論戰爭은 國家의不幸、人類의凶禍이다 될수잇스면 이를避하야 國際和親을함께함이 人類의理想이오 同時에 我國民性에 渟한國風、國策으로서 日淸、日露兩大役의 動機도自衛와 東亞全局의 平和를擁護할 眞實로不得已한 事情으로부터 나왓든것은 歷史가明證하는바이다 今回事變도 또한이例에不外한바 我國의隱忍이 오히려 支那當局의 自恣跋扈을加하게되여 東亞의禍根을 斷切하는 大乘的計圖에基하야 一擊하야써 彼의 反省을 促하는 趣旨에 不外한것으로 今새삼스러이 絮說할 必要는 업다。即近將來는勿論、吾人의子孫時代에 亘하야도 再次如斯한 東亞民族의 犧牲을 反復하는原因을 拔塞하야 日滿支提携에依한 東洋平和의 根基를 定함으로써 本言도하는것으로 今次事變을 聖戰이라고 稱하는 所以는 또한 여기에 잇는것이다。

此大業恢弘의 使命에 邁進한 皇軍은 世界環視裡에잇서 隨時到處에 本來의 面目을 發揮하야 征戰半歲로 國都南京을爲始하야 南北의 主要都城에 頑敵을討伐하고 政治的으로 經濟的으로 國民黨政府를 窮蹙케하야勝敗의數가 임서決定된것은 上으로 陛下御稜威下에 內로全國民의 鞏固한 結束과 外로皇軍의 威武의 齎來하는바로 感激不已이다。

南京의 陷落에依하야 蔣介石政權은 完全히 消失되엇다 假令그殘骸와 가튼것이 存在하더라도 이는單純히 一地方政權으로化한今日、吾人은 支那의眞實한政治的中心이 이미治安이 거의 安定된北支의 地域과 我國과 함께 [illegible]의 理想을함께하는 그民衆에 잇다고생각하나 蔣一派가長江上流에 逃避하고잇더라도 依然外力依賴에 依한 抗日의 意圖를不改하고 平和建設의 障碍인 匪賊的蠢動을 努力으로서 殘存하는 限事變은 勿論終熄을 告할것이어나 容易히干戈를 거둘수는업는것은 國民은 彼의常套의猾策에 欺瞞될것을 警戒하고 功利로써 危局에乘할려는 二、三列國의 異圖를 注意하면서 더욱鞏固한 擧國一致의 國民的態勢로 整備하야 聖戰의 意義를 完全케하지안으면아니된다。

때마치 防共協定이 伊太利의 參加로 强化된 日獨伊防共陣營은 滿洲、西班牙 其他數個國의 贊成한支持를 加하야 新秩序에 對한國際의新紐帶로서 赤化의破壞로부터 世界文明의 擁護에 任하게된것은 진실로 平和建設에 貢獻하는바 大한것이다。

如斯히 我帝國의國是、國策을 中心으로 東亞에國民的大經綸을 行할때에際하야 我朝鮮에잇서서는 同胞가모두 帝國의崇高한 使命과 이를一貫한 實力과를 認識하고 赤誠을 國家에捧하야 皇民된 名實을 示하여온것은 眞實로 統治史上의 劃期的事象으로 國家의 幸慶인 同時에 同胞自身의 福祉를齎來하는 所以라고 생각한다 施政二十七年、그實績은 아직完璧이라할수업는바 施設의擴充할바 아직前途에 山積한다 그러나 이들은 勿論 國民으로서의 意氣를함케함에依하여서만 實現을促할수잇는바 近民衆間에 昂揚된 國民意識에依하야 時艱同時의 趣旨로써 物心의開新에 當한다면 施政의 伸暢、民福의 向上은 自然히 招來할것이다 事變의戰果로부터自然展開될 東亞의 新情勢에 對하야 朝鮮이占한地位와 使命과는 益益重大하다아니할수업다 即日滿蒙支에亘한道義的民族融和와平和의新建設及 經濟相助關係의 結成에對하야 我半島는 여러가지 意味에서 더욱用心하야 他面 이地位가半島民衆의 生活에 福祉를齎來하는 機運을 提供하지안으면 아니된다 道內官民은잘 이機運에處하야 使命을다하야 各人이 모두日本國民인 矜持로써 東洋安定의 指導的立場을理解하야志向을 高邁히하야써 帝國臣民을爲하야 全幅의 努力을 傾倒치안으면 아니된다 戰勝의榮光에빗나는年頭、다시事變의 長期化와時局의 轉變과에 對하야覺悟를새로히함에 際하야 特히感想을披瀝하는 所以이다。（筆者는南總督）

不退轉의氣魄으로
有終의美를擧하라
朝鮮軍司令官 小磯國昭

今에 支那事變第二年의 新春을 마지하야 삼가 聖壽의無彊을 奉頌하고 天業恢弘의 [illegible] 더욱 [illegible]하고잇는것을 [illegible]하는바이다 생각컨대 昨年七月事變勃發以來 半歲에 [illegible] 皇軍은가는곳마다 疾風이枯葉을 掃討함과가티 싸우면 必勝하고 攻略하면奪取하야 北은 京漢及津浦沿線에 南은上海及首都南京에 旭旗燦然히 天日파함께빗나게되야 私利[illegible] 支援에 [illegible]할것을野望하고잇는 某某 第三國도할수업게되여 我皇軍의 赫赫한 極東戰線의 偉勳은 [illegible]보다 堅固한 銃後同胞의 [illegible]

[illegible]

（筆者는 小磯軍司令官）

國際政局將來에
對處할準備가必要
政務總監 大野綠一郞

歲華가바귀여 玆에戰勝의 春을마지하야 恭俺히 皇室의 彌榮을 奉壽하는 同時에 皇軍이 建設한 偉績을 讚仰하야 國家의光榮을 慶祝한다

日支間의 戰事가 勃發한以來 北[illegible] 世界古今의 [illegible]한 戰史에 一大光芒을 放하고 國威를 [illegible] [illegible] 이 明治大帝의 聖訓에 基하야 東洋平和擁護의 使命에 任하고 [illegible]

[illegible]

（筆者는 大野政務總監）

本報 6,000號 五週年新革 紀念
三大事業計劃內容

躍進에 躍進을 거듭하는 우리朝鮮日報는 今年一月二十五日로써 紙齡第六千號를 마지하게 되엿스며 四月二十五日로써 革新五周年을 마지한다。紙齡六千號가 그리 만흔것은 아니지만 朝鮮의 現實과 朝鮮新聞界의 歷史로보면 實로 惡戰苦鬪의 記念塔이다。이리하야 本社는 今年에 이 거듭하는 二大慶事를 記念하기 爲하야 左記 三大事業을 實行하야 滿天下讀者와함께 기쁨을 자려하는同時에 朝鮮文化事業에 一端의 貢獻을하려한다。

朝鮮特產品展覽會

朝鮮은 朝鮮으로서의 特殊產物이잇다。開城人蔘은 世界的으로 이름난것이오 黃州林檎은 英國淑女들의 食卓에 오르는것이다。江華의 돗자리、德川의 亢羅、統營의 螺鈿漆器、永興 明紬、渭原 벼룻돌、全州의 白紙、潭陽의 竹物等 多數한 特產物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며 外國에 내노아도 자랑할만한 產物이다。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特產物인 貴重한 價值를 認識치 못하고 外來品、舶來品만을 愛之重之하니 寒心한일이다。製造가 機械化하지못하고 組織과 宣傳이 企業的、科學化하지못하며 販路가 狹窄하야 그優秀한 聲價를 發揮치못하고 年年 萎縮狀態에 陷해가는것은 오로지 우리가 우리產品을輕視하고 等閑視한때문이다。이리고야 어찌 우리經濟의 發展을 펴할수잇스며 世界進運에 順應할수잇스랴。本社는 어에 特產品展覽會를 開催하야 朝鮮產業發展에 微誠을 다하려한다。

朝鮮鄕土文化調査

朝鮮사람에게 가장 因緣기픈것이 잇다하면 그것은 朝鮮의鄕土 朝鮮의文化일것이다。震人自古의 神域聖區가 여기잇고 佛道場의 淸淨境、民生敎導의 끼친 院宇가 여기잇고 民譚의 山野、俚謠의江河、神話의大海가 여기잇서 上下五千載의 長長靑史가 오직 여기에 秘藏되엇다。一塊石 一莖草가 하나도 허술한것 아니어서 거룩한 내鄕土美에 對한 感受를 極盡히해야겟고 이靈胎에서 金엣된 온갓 文化를 찻고 더듬어 人文相의 眞實한 面貌를 瞭然케 해야겟다。그러므로 이鄕土自然과 내人情 風尙을 하로바삐 討整해야 할것이 우리의 緊重한 急務이기로 本社는 이 事業에 着手코저하는바이다。社員을 派遣하야 全朝鮮 坊坊曲曲의 自然과 文化를 踏査臨證하고 長期間을 費하야 이事業을 完了코저하는바 繼續的 紙上發表로써 朝鮮의鄕土及 文化에對한 正明한 再認識을갓게하는同時에 스스로朝鮮의文化 樹立에對한 赤衷의 一發現을 삼고저한다。

極東時局地圖贈呈

世界는 바야흐로 極度의 緊張을呈하고잇다。特히 極東은 支那事變以來 戰雲에 싸여 民衆은 歸趨에對하야 만흔關心을 가지고잇다。그리하야 極東時局에 對한 知識的 要求는 날로 增大하야간다。玆에 本社는 이時局에 關한 詳細한 說明을加한 極東時局大地圖를 發行하야 讀者에게 贈呈하야 參考에 供코저하는同時에 平素의 愛護에 報答하려한다。(但 其他事業及 詳細事項은 追後發表함)

朝鮮日報社

世界政局의趨勢 【一】
徐椿

今日의 世界를 움직이고 잇는 根本原理는 무엇이냐? 그原理에서 움직이고 잇는 世界政局은 어떠한「코-쓰」를 밟고 잇는냐? 하는 問題에 對하야 簡單한 解說을 부치는 同時에 余個人의 所見을 略陳하고저 하는것이 本論의 目標다。

世界를 움직이는者는 行動이오、行動을 惹起하는 同時에 行動에 一定한 方向을 賦與하는 者는 主義主張이오、主義主張에 合理的 論據를 提供하는 同時에 能히 一世를 風靡할 支配力을 賦與하는 者는 思想上의 原理原則이라고 할것이다。

이런 意味에서 보면 世界政局의 動向을 살피고저 하는者는 먼저 今日의 世界를 風靡하고잇는 思想이 무엇이냐?하는 一點을 捕捉하는것이 가장 緊要할것이다。

[illegible]

社說

新年에 際하야

一

新年에 際하야 皇軍의 [illegible]과 武運의 長久를 祈願하는 바이다

生覺하면 昨年 七月 蘆溝橋에서 [illegible]을 이른지 이미 半個年, 그동안에 있어서나 損失에 있어서나 歷史에서 일어난 未曾有의 大戰爭이다. 元來 支那事變은 偶發的 事件으로 地方的問題로써 이것을 解決하려하엿스나 支那國民政府는 이것을 拒否하야 二十九軍으로 하야금 武力的抵抗을 試케하엿슬뿐 아니라 中央軍을 動員 北上케하야 長期까지 抵抗을 하엿스므로 不得已 膺懲主義, 全面的 攻擊主義로 變한것이다. 이리하야 一旦 膺懲主義로 化한 皇軍의 精銳는 [illegible]의 勢로 支那軍을 擊退하엿스니 北支五省이 不過五朝에 占領되고 上海, 南京等 支那가 世界的으로 자랑튼 堅壘도 四個月만에 陷落되고 말엇다. 이것은 主로 皇軍의 忠勇無比한 奮戰에 依한것으로 上下 한가지로 慶賀할 일이다.

二

그러나 再考하면 아직 支那事變은 決定한 段階를 넘지 못하엿다. 上海, 南京이 陷落되엇다할지라도 蔣介石政府는 首都를 重慶으로 옮기고 南昌에 大本營을 두고 [illegible] 西北國境을 通하야 [illegible] 輸入하는 同時에 [illegible]에 防共協定을 [illegible]하야 第二, 第三國의 [illegible]를 計劃하고 잇다. 特히 英國, 蘇聯 政府는 公然히 蔣介石政權을 援助하야 長期抵抗을 助長할뿐아니라 支那國民政府로 하야금 列國의 事變中에의 引入을 策動케하는 態度를 짓고 잇다. 英國大使事件後의 英國의 反日運動, 시카고 市에서의 米大統領演說, 파네이號事件, 英艦[illegible]事件등은 그 [illegible]을 여실히 볼수잇다.

三

그러므로 今後 一般은 現在의 戰時狀況으로서 事變이 一段落되엇다기보다 [illegible] 堅忍持久하야 非常時局에 對處해야 할것이다. 그러하라면 各員共業에 本分을 다하야 所定한 [illegible]과 任務를 遂行할지니 [illegible]히 時局을 云云하야 一層上의 [illegible]을 바라거나 時局을 利用하야 [illegible]를 民衆에게 끼치는 일이 잇서서는 안될것이다. 時局이 重大하면 重大할사록 個人은 各各 慎重한 態度를 堅持할지며 決코 附和雷同커나 輕擧妄動하여서는 될것이 아니다.

日蘇漁業條約 一個年間再延長
卅日莫府에서調印

【東京電話同盟】懸案의 日蘇間漁業條約은 三十日午前二時半에 莫斯科에서 重光大使와 베·스토모니야코프外務人民委員部次長의間에 暫行協定再延長의 議定書에 正式調印을보앗스므로 外務省은 同日午後十時에 左와가티 發表하엿다

▲外務省發表 日本國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의 漁業條約의 第二回効力延長에 關한 議定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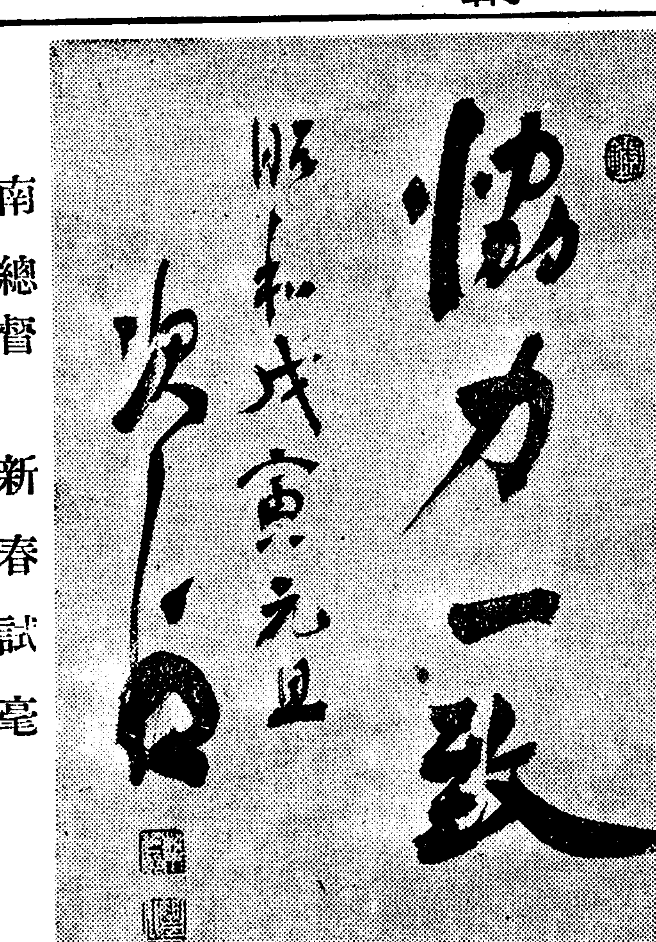
一九二八年一月二十三日에 署名되고 一九三六年 五月二十五日과 同年十二月二十八日에 各各署名된 議定書에 依하야 効力이 延長된日本國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의 漁業條約의 存續期間은 一九三七年 十二月三十一日에 滿了되는바 一九三七年十二月三十一日前에 新條約이 締結되지아니할터이므로 大日本帝國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의 政府는 一九二八年一月二十三日에 署名된日本國과 쏘베트社會主義共和國聯邦間의 漁業條約과 附屬文書가 一九三八年 十二月三十一日에 이르기까지 効力을 存續할것을 이에協定함

右證據로 下名은 各本國政府로부터 正當한 委任을바다 議定書에 署名하엿슴

昭和十二年十二月二十九日 卽 一九三七年十二月二十九日莫斯科에서 本書二通을 作成함

重光葵 베·스토모니야코프

(露文은 重光大使와 스토모니아코프)



南總督 新春試毫

朝鮮豫算決定
五億五百十九萬圓

【東京電話同盟】朝鮮, 臺灣, 樺太, 南洋等의 各外地豫算에 對하야는 去番來 大藏, 拓務兩省에서 여러가지로 折衝中이든바 卅日에 左와가티 決定하엿다

▲昭和十三年度의 拓務省所管各外地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槪算은 左와갓다(單位千圓)(朝鮮의分)

昭和十三年度 歲入歲出豫算額 (附前年度比較)

朝鮮總督府

	昭和十三年度豫算額	前年度比較增
歲入 經常部	三六九、四四二	三九、八四二
臨時部	一三五、七五二	四二、四五四
合計	五〇五、一九四	八二、二九六
歲出 經常部	二六八、四〇〇	二五、〇九六
臨時部	二三六、七九四	五七、二〇〇
合計	五〇五、一九四	八二、二九六

昭和十三度의歲出豫算中 主要한新規事項金額(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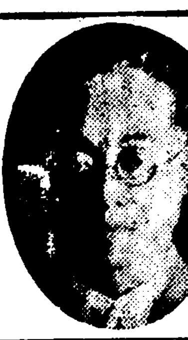
一、鐵道改良工事(總額二八、八八六千圓三個年)
一、國防道路修築及改良工事(總額五〇五千圓二個年) 四〇五
一、航空施設 二、二七三
一、防空及警備施設 七四七
一、馬增産計畫 二二五
一、牛增産計畫 三三七
一、棉花木材增産施設 九五〇
一、液體燃料生産獎勵 一七一
一、産金獎勵 一、〇七六
一、擴田[illegible]計畫 六〇〇
一、初等敎育擴張完成計畫의繰上 五一八
一、在滿在支朝鮮人施設 八三〇
一、罹災救助基金[illegible]成 三七五
一、臨時軍事費特別會計繰入金 一七、五〇〇
一、軍事援護事業助成 七三

謹告

今一月一日은 朝夕刊共히 休止하오니 如此諒知하야주시옵소서

朝鮮日報社

警察力을總動員 國家體制를整備
警務局長 三橋孝一郎



東亞의 妖이 바야흐로 개이려하고 旭日昇天의 乾坤一新의 [illegible]에 際하야 [illegible] 皇國의 [illegible]을 [illegible]하며 [illegible]이다.

삼가생각컨대 [illegible]하압시게도 天皇陛下께압서는 大御心을 [illegible] [illegible]하압시사 [illegible] 警備의 [illegible]를 詳細히 [illegible]하압시고 [illegible] 下 [illegible]에 對하야 [illegible] 聖旨와令旨를 [illegible]하압신것은 [illegible]이다.

昨夏突然北支一角에 火蓋를 開한 暴戾支那膺懲의 聖戰은 [illegible]한 支那[illegible]의 全面에 [illegible]하야 壯烈 鬼神을 哭케할 皇軍의 勇戰과 銃後國民의 强力한 一致團結下에 皇國의 威武를 [illegible] 將兵이 [illegible] 南京을陷落하고 大勢가 [illegible] 定되여 東洋平和確立의 曙光은 世界를 [illegible] 朝鮮에 잇서서는 官民一體 [illegible] 後의 熱誠을 披瀝하고 [illegible] 機關도 [illegible] 一致協力하야 [illegible] 輿論의 指導에 努力하며 事變을 [illegible]하야 內鮮一體의 實을 더욱强化하야 未曾有의 [illegible] 多難한 [illegible]

[illegible] 徹底히 [illegible]하야 [illegible] 治安의 [illegible]을 [illegible] 民衆으로 하여금 [illegible] 防空等 [illegible] 時局에 [illegible] 國家總動員의 [illegible] 警察力을 總動員하야 [illegible] 國家體制를 整備[illegible]

八錄

多事多難한 丁丑年은 가고 有爲多望한 戊寅年은 오다

◇ 極東政局은 어찌되나? 歐洲政局은 어데로 가나?

◇ 太平洋건너 名譽의 孤立을 자랑하는 米國은 어찌하나?

◇ 두루 생각하면 戊寅年은 그리 平坦할것갓지는 안허.

◇ 世界가 多端하면 朝鮮도 平和만을 期待키 困難.

◇ 新年이라 屠蘇酒에만 醉할것이 아니라 時勢와 環境도 잘살펴야할일.

頭山氏等의 一石

[illegible] 政黨自體로서는 [illegible] 다하여도 [illegible] 政黨의 [illegible] 어 [illegible] 近衛內閣의 [illegible] 十二月中旬에 頭山滿, 一[illegible] 公, 山本英輔大將三人은 連名으로써 『全國民에게 訴한다』는 聲明書를 發表하야 [illegible] 政黨解消論을 提唱하엿다. [illegible]

新黨運動의 今後

頭山一派의 聲明은 現非常時局이 要求하는 擧國政黨의 出現을 要求한데不過한것이오 新黨運動도아니다. 그러나 政界乃至政黨에 動搖의 一石을던진것만은 確實한事實이다 이에對하야 去十八日 中島鐵相永井遞相과 前田參議는 近衛首相에게 다음과가튼 報告를하엿다고한다.

一、政民兩黨을 大體現在대로合同하야 政黨政治의 實現을希望하는者.

二、兩黨의中堅議員이 指導的地位에서서 政策本位로 新黨을 樹立하라는者.

三、中立, 社大, 東方會等革新分子가 橫斷的으로 結成하야 民間愛國團體와도 提携하야 革新政黨을만들라하는者.

以上三潮流로 大別할수잇스나 三者가모다 [illegible] 로되기는 어려움으로 자리全體的으로 橫斷的協力에依하야 一大新黨을結成하라는傾向이 보인다고 [illegible]

여기까지의 事實을 綜合하야본다하면 新黨運動의 今後가 엇더케展開되어가리라는것도 거의想像할수잇슬것이다. 그러나 本格的革新이 [illegible] 이時間에서 不過十數時間만지나면 十二月二十四日, 第七十三議會가召集된다. 議會가열니다할지라도 年末에는 顯著히運動을보기어려울것이나 新春再開를前後하야 엇더한運動이 展開될른지 實로 刮目할만한일이라할것이다

(十二月二十三日記)

近衛內閣과 政黨
金炯元

第五次擧國內閣

近衛內閣은 去六月四日 林內閣瓦解의 뒤를 이어 成立되엇다. 도리켜 생각하면 五·一五事件의 뒤를바더 齋藤中에 出現한 齋藤內閣以來 實로 第五次의 擧國一致內閣이라할것이다. 이한가지 事實-擧國內閣의 出現과 交替의 頻繁한 事實만 가지고도 吾人의 興味를 惹치 아니할수업는 同時에 近衛內閣의 特殊한 任務를 發見코자하지아니할수 업을것이다.

그러면 近衛內閣은 무슨特殊한 任務를 가지고 登場하엿는가. 박구어 말하면 日本國이 近衛內閣에 對하야 어떠한 特殊한 要求를하엿는가.

首相近衛文麿公은 五攝家의一인 近衛家의 出身으로 幼時以來 元老西園寺公의 指導愛撫를 바다 將來의 宰相之材로 누구나 嘱望하든것은 너무나 周知의 事實이어니와 그의 言行 政治的抱負, 交遊關係로보아 比較的 淸新한 人物로 指目할뿐아니라 그가 政界에 出現하자 四十臺의 靑年으로서 貴族院議長의 重職을 맛게되고 官, 軍, 民을 通하야 相當한 知己를 가지고잇서 必然的의 [illegible]에잇게되엿다」 다시 말하면 [illegible] 非常時擧國內閣의 首班으로서는 가장適任일지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常識論만가지고는 第五次擧國內閣으로서의 特殊任務를 說明할수는 업는것이다.

近衛內閣의 任務

近衛內閣의 任務를말하기前에 먼저 日本國內의 當時 情勢를 一瞥할 必要가잇다. 要約하야말하면 『國家統制力의 强化를 中心으로하야 急進運動(左右共)을 抑制하는一方 社會一般이 希望하는 革新政策을 具現하여가지아니하면안될것이오 더욱히 國內의社會施設은 아직도매우 不充分한으로 强化된政治力을가지고 社會政策의實施를圖하지아니하면 안될 必然的運命에잇게되엿다」 다시말하면 [illegible]

時의 國際情勢로말하면 『沒落途中의 國際聯盟을 비켜노코 列强은 [illegible]形成에向하야 猛進하는中이엇슴으로 이에따라 勢力範圍의 擴張을 前提로한 國際角逐이 더욱猛烈히 展開될것은 明若觀火의 情勢이엇다』 以上을 다시 簡單히말하면 『國內的側面과 國際的側面의 難關을엇더케 調和料理하여갈가하는點에 日本國運의 消長이 달리엇다고할만한境遇에잇섯다』 할것이다 그러나 이事調節한다는問題는 單純한 擧國內閣의 意思에만맛기어서 될것인가하면 決코그러치안아니오 擧國內閣의 統制力과機能의 境遇을 必要로하는同時에 이에對한 國民의批判力增大와擧國內閣을 國民的擧國內閣으로發展하여서 所謂官僚獨善을버리고 國民的背景으로 나아가지아니하면 안될必要를느기게 되엿다. 統制를 目標로 革新政策을 내어걸기는 齋藤, 岡田, 廣田, 林의 歷代內閣이 모두 同功異曲이라할것이나 이들은 모두 實際에 [illegible]

한 意味의 國民的擧國內閣이 못되고 一種의 超然內閣으로 現役하엿슴이오 近衛內閣이 야말로現時局이 要求하는 强力的國民的擧國內閣이 아니어서는 안될任務를가지고登場하게된것이다.

事變과 內閣强化

近衛內閣은 첫재 그閣僚의人物로보아서林內閣보다는 무게가 잇서보이고 또淸新한맛을보이엇다. 그리고 組閣劈頭에

一、國內相剋의緩和
二、國際正義에立한平和確立
三、國民全體와協心努力

의三大政綱을 聲明하는同時에 齋藤內閣以來의 모든革新政策의 宿題를 比較的急進的態度로 一事에解決하라는 態勢를보이엇다 그러나 國內情勢를 調節할餘暇를엇기도前에 組閣한지 一朔만에 北支事變이라는 重大한國際關係에 逢着하게되엿다. 이에近衛內閣은 擧國內閣에서 事變內閣으로 實的飛躍을하게되엿고 一部에서傳하는 首相의身病으로因한排斥說도 完全히解消되고말앗다 筆者는 여기서支那事變에 關한말을 一切避하랴하거니와 重大事變에 直面한 近衛內閣은 무엇보다도먼저 內閣自體의 强化를 要하게되엿다.

調査局과 資源局을合하야 企劃院을만드든가 企劃廳을다시 企劃院으로 곳치는다든가, 또는內閣參議니大藏省顧問이니하는 『뿌레인·츠러스트』 工作을 進行한다든가하는것도 內閣强化工作의一端으로볼수잇거니와, 馬場氏의後任으로 內務大臣에 海軍大將末次氏를 드려세우고 또新設된厚生省(厚生省)에는 荒木大將을 大臣으로推薦하라는風說이잇는것은 人的强化策의 一端으로볼것이오 어바게정말强化策으로는 國民的信望을 모으는것이 가장重要한일인데 國民的政黨의 支持가第一必要할것이다.

兩黨으로부터 小數나마閣僚를 더드리기에 成功하엿고 各省의政務官을全部議員在籍者로 任命하는데 成功하엿다. 近衛首相은 政黨을認定하엿고 따라서 近衛內閣의 擧國的色彩도 一層濃厚하게되엿섯다. 더욱이 組閣後最初의議會인 第七十二特別議會는 支那事變의突發로因하야 戰時議會의 特質을發揮하엿슴으로 何等의 摩擦이업섯다할수잇스나, 一方政黨側으로 보다하면 『速記錄을 調査하야보아서 내가 廣田內閣 末期에 濱田國松氏가 軍隊를 侮辱한말이잇스면 割腹하야 그대에게謝罪하겟다 업섯스면 그대가 割腹하라』하고 當時陸軍大臣寺內壽一大將에게 덤벼들엇든것가튼林內閣當時第七十一議會末期에 議院法改正案을가지고政府와相克하다가 解散을當하는等事가 업슨것도아니지만, 昭和六七年以來모든重壓下에서 開店休業을 繼續하고잇슨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政黨을 엇지까지든 지國民의代表라고 相對한다는것은 [illegible]

開店休業의 政黨

近衛內閣은 組閣當初에 政民[illegible]

今日本紙그라비아版合三十二面

金基德

大昌産業株式會社
社長 崔昌學
京城竹添町一丁目

時局關係上年賀狀欠禮
朴基孝

孟永玉
京城府明倫町一丁目四九
電話光化門一〇三八番

朝鮮運送株式會社

朝鮮製氷株式會社

甲子商會朝鮮出張所
京城府黃金町四丁目六六
電話本局五九五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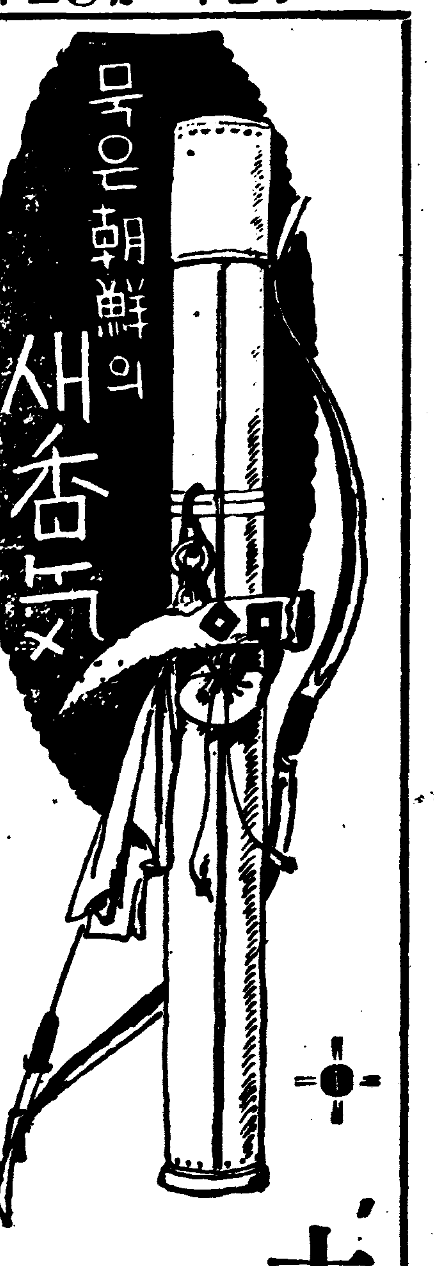
日華鑛業商會

三洋舍クリーニング部
京城府唐珠町一三
(電光三七〇八番)

府民館食堂
電本② 二三五六 四六四九

時兆社
京城府淸凉里町

京城療養病院
京城府徽慶町



大弓'後裔의面目 朝鮮武術의精華

李朝의全盛期는宣祖當代 物換星移·壯老年스포츠로

弓術篇 A

옛날의 조선을 중국사람들은 동이(東夷)라고 부르고 또는大궁(大弓)이라고도 일커럿다고하는데 이대궁이라는 일흠은 그당시 이떠의 편아버지들이 활을 뛰어나게 잘쏘앗다는데서연유해 생긴것이라고한다 이처럼 활이란것은 옛날조선의 상징(象徵)으로까지 되어잇다

고대조선의 숙신(肅愼)의 고시석노(楛矢石砮)와 예(濊)의단궁(檀弓)과 고구려(高句麗)의맥궁(貊弓)이 모두각각특이하게뛰여난 활이엿스며 그후 삼한시대(三韓)삼국시대(三國)고려시대(高麗)조선시대(朝鮮)를통하야이궁시(弓矢)가 가장 중요한 무기엿고 가장 보편화된 무예엿섯다 오늘날 총포(銃砲)시대가 벌서 공중전(空中戰) 화학전(化學戰) 시대로 변천한 때에 잇서서 새삼스러 옛날 그시절에 천하를 울리던 궁술(弓術)을차저서 무삼하리요마는비록시대가 변천하고 물형이 달러젓다고하더래도 례궁례시(禮弓禮矢)하며 향음주례(鄕飮酒禮)하든 궁도(弓道)의 동양무사도정호백은 현대의 무사도에오리혀 통가함이 업지안허 이제 그옛날의 빗나던 상무(尙武)의 길을오늘날 그잔재의 형태에서나마 그나마지 향기를 차저보려합니다

이제전조선에 허터저잇는 사정(射亭)을 망라하야 조직된 **조선**궁도회(朝鮮弓道會)의현재회장이요근세조선 궁도보궁의 선구(先驅)가된황학정(黃鶴亭)의 사두(射頭)로잇는 성문영(成文永)씨를 방문하야조선궁도의 이야기를 듯기로한다

◇

…무얼 어야기할것이 잇서야지요 어야기한다면 모두대강다아는것뿐이지오 조선에궁술이 전하여 내려온지가 벌서 수천년이고 이궁도는 비단조선의 무술(武術)뿐만 아니라고하여도 조흘만치 발전하여 내려온것이지오 아마 활이처음생기기는 아득한옛날에 사람이 즘생을 잡아먹느라고한 기구로서 생각해낸 모양입디다 또도구의 말을들으면 아주 예적 사람의 지혜가 발달되지못하엿슬적에 사람이죽으면 그시체를 무들줄을 모르고 그대로 들판에 내여버려두엇섯는데 그때 날즘생과 길즘생들이 그시체를 쪼아먹음으로 그부모 형제들의 시체가 눈아페서 무참하게 쪼여먹히는것을 차마보다 못하야 이것을 무릅슨 채모생각해내고 그눈에보히는 침해를 막으랴고 생각해낸것이활의원시형(原始形)인가봅니다

이런말이 적당하지는 모르되그러하면 이활이 처음나던 동기로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효제(孝悌)의관념에서 우러낫다고도 볼수잇겟지요 그것이차자 수렵(狩獵)용으로 쓰이게 되고 한거름 더나아가서한부락과부락이 또는 한나라와한나라가 싸우는데 무기로 사용되게되엿나봅니다 그러는동안에 이것이 동양무사도의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하야 옛날부터 활이란 례악사어서수(禮樂射御書數)란육례의 한가지로까지되여 읍양이승(揖讓而升)하고 기쟁야군자(其爭也君子)하며 불원승기(不怨勝己)하며 반구저기(反求諸己)하는 사풍(射風)이 일어되여 무사도(武士道)의 정수(精粹)가되여 이것이 한가닥(?)이아니라 군자의 심신수양의 가장 귀중한것이 되엿섯지요

리조(李朝)때에 드러와서 궁술이 성해지기는 아마 임진란(壬辰亂)이후인가봅니다 선조(宣祖)께서 군비의 충실을 통감하시고 병화(兵火)에 업서진 영문(營門)과사정(射亭)을설시하시고궁술을장려하섯는데 특히 경복궁(景福宮) 건춘문(建春門)안 넓은뜰에 사정을 시작하시여 오운정(五雲亭)이라고 명명하서서 민간의일반한량(閑良)에게도 활을소게하섯답니다 이때부터 경향을 물론하고 편편곡곡으사정의사정이 도처에서 이러나서 조선의 궁술이 일대진보를하게되고 무과에도 궁술이 주요한 과목으로 선정되엿든가보오 이리하야 한참오랫동안 조선에 궁술이 성히 전하여내려와서 궁술이 성할때에는 국운이 흥하고 궁술이 쇠할때에는 국운까지 쇠하여지는 판게를 가지고내려오더니 리조말엽에 와서는 점점 궁도가 쇠잔하여가서 군문궁수(軍門弓手)가 아주자최를감추어버리고 다만요지음 말로 체육용으로 각궁유엽전(角弓柳葉箭)이 겨우 민간에서 련맥하여와슴따름이오 새로수입된 총기(銃器)의 서양식병대교련도 하잘것업는 형편이엇소 이리하야 그전에는 전조선각지에 림립(林立)하엿든 사정도 모조리 황폐하여버리고말엇셧소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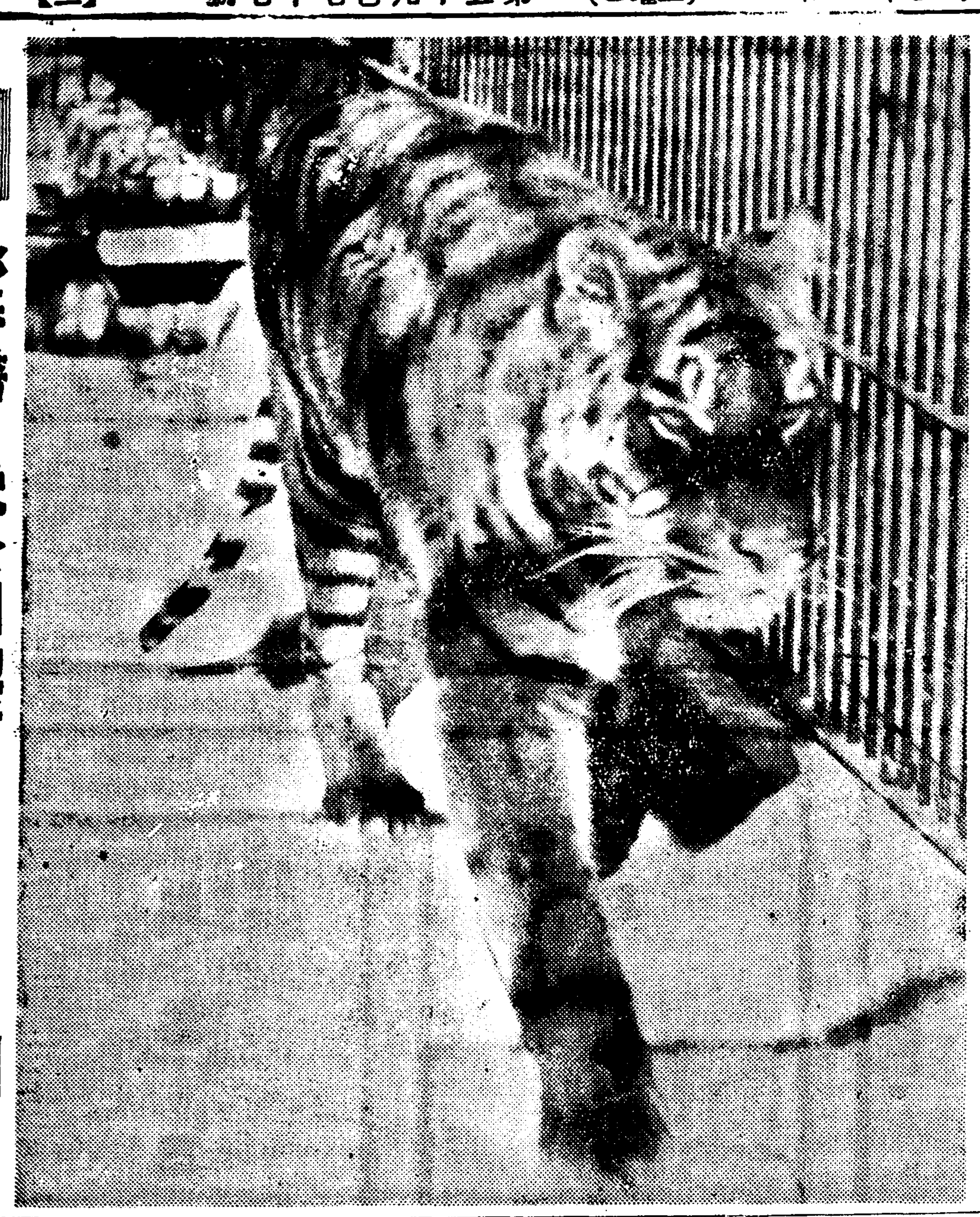
(사진은 조선궁도회장 성문영씨)

大同工業專門校로 急轉直下로變質

平壤崇實專門校의後繼校 本紙特輯後新事態

평양의 력사와함께 오랜 단하나인 사립전문학교—평양숭실전문학교(崇專)가 그경영단체인 북장로회 조선선교회의"교육이퇴원측"에의하야 폐교결정이 되자 이미잇든교육기관으로서도 다른 사회에서 용수업는격렬한 입화낭을격고잇는 지금조선에 잇서서 기설학교가하나라도 업서지는것을 유감천만으로여인 대동광업회사(大同鑛業)사장 리종만(李鍾萬)씨는 사재일백이십만원을내노아 숭전을후계하야 평양에다 전문학교를신설하되 그내용으로는 숭전에잇든 문과(文科)와 농과(農科)외에 광산과(鑛山科)까지 증설(增設)한다는것은 당시보도한바로 본보별지신년호특집(特輯)에추급한내용도 동씨가발표한당초의 계획내용에의한것이엿다 그러나 그뒤동씨측에서 총독부학무당국과 평남도당국과의사이에 구체적절충을한결과는 현재의 출자금으로는 도저히막대한 비용을요하는 광산과를둘수가업는것이 판명되엿고 또당국의 의견이 문과설치를찬성하지안는것이 판명되여 결국리씨측에서는 농과하나만가지고 농업전문학교를만들 의사라고하는것도 이미보도한바이엿스나 십이월 이십팔일 리씨측 리성환(李晟煥)씨가 평남도당국을 방문하고 최후적절충을한결과는 드듸여 기보한바와가티 채광(採鑛) 야금(冶金) 전기(電氣) 기계(機械)의 네분과를두는 공업전문의교로 결정되고마럿스며 이것은 공업도시 평양의 지리적특수성과 시대의요구라는 당국의의사에따라 결정한것으로 이것은별지신년호특집후의 사태이다

이와가튼 최후적결정을본 리종만씨는 삼십일오전열한시 리성환씨를다리고 염원(鹽原)학무국장을 자택으로방문하고 이뒤에오는수속절차에대하야 간담을거듭한바 잇섯는데 신설교명은『대동공업전문학교』(大同工業專門學校)로 내정하엿스며 모든구체적내용은 오는칠일 학무국평남도청과 리종만씨로부터 일제히 공표하기로되엿고 곳계속하야 학교경영 재단인 대동학원(大同學院)의 재단인가원은 그소재지로 경성부를거처 제출하고 전문학교설립인가원은 소재지평양부에 제출하기로 모든절차가 결정되엿슴으로 멀지안허『대동공업전문』의 새모표는 고도평양의 새로운자랑거리가될것으로 기대된다



咏春譜! 虎公의咆哮 (오늘창경원에서)

計畫變改를 諒解하시라 李鍾萬氏談

(사진은 염원학무국장을 방문하는 리종만씨)

고도란은 리종만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오날 학무국장을 맛난것은그동안의 경파를말하고 량해를구한것이다 여기대하야 학무국장도 전폭적으로 찬성하는뜻을 표하엿슴으로 모든계획은 순조로울것이다 지금당초의 계획과는 전연다른 공업전문으로 결정을보게된것은 일반사회더욱숭전관계자여러분에게대하야 퍽미안한일이나 학교를세우기 위하야서는 당국의 의사를 존중하지안흘수업는것을 량해하야주기바란다 더욱숭전교우회직원회 재학생들은 물론 평양사회에서 열망하는 『숭전』이라는일홈을 달지못하는점에 대하야서는 사정상 부득이하다는고충을 살펴주기 바라며 공업도시 평양에 공업전문의교가생긴다는것을 대승적(大乘的)견지에서 지지후원하야 주기바라는바이다 학교집은 평남도당국의알선으로현재의숭전교사를 당분간빌려쓰게되엿스며 재의생과직원도 당국에서 책임지고 선처하여주기로되여잇는것은 우리로서는 안심되는 바로 대단반가운일이다。

崇實名義만 避하면좃타 鹽原學務局長談

이에대하야 총독부염원학무국장(鹽原學務局長)은 다음과가티말한다

리종만(李鍾萬)씨가 오늘와서 평양(平壤)학교계획에대한것을 말하기에 서류를제출한후 추에 천천이하야 보자고말하얏다 평남도당국과협의한결과 공업전문학교로 계획을변경한 모양이다 공업전문으로한다면 농과나 문과는 자연업서질것이다 일백이십만원의 기본금가지고 씨의계획하는 여러가지과를 일시에전부다하기는 곤난할것이다 그러나 한과식 두과식점진적으로 할터이므로 위선그것만으로도 할수가잇스리라고생각한다 물론집하자면 좀더만흔 기본금이 필요한것은 사실이다 학교명칭은 숭실(崇實)이라일홈만 붓치지안흐면 아못것도 상관업다 하여간씨의장한 계획에는 딴민간에 경의를표하지아니할수업다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후원하야 경당한 궤도에올려노코 안전히 운전하야가도록 하랴한다 조선교육계를 위하야이런유지인사가 뒤를이여 속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바이다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蒙古와 朝鮮에잇고 間島地方의 氣壓은谷을지어잇스며 哈爾濱及露口의西쪽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오호츠크』海方面은 氣壓이낫스며 또 滿洲北東方에는 小低壓이잇다 滿洲와 朝鮮은晴 表日本도晴 裏日本과 北海道는 흐리고 곳에따라서는 눈이 오는곳도 잇스며 南西諸島도흐리여잇다 오는밤부터내일아츰에 걸려서 小雪이잇을模樣이며 일시 氣溫은 따뜻해지고 점점 日氣는 조와지되 氣溫은 다시 치워진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 흐리고 小雪이잇슬模樣이며 明日은 北西風으로 날은개이다

昨日最高 零下一度九
同 最低 零下一度八
今朝最低 零下一度一
今日正午 零下一度二

全日本中等氷上 鄭庚彦君二着

第八回全日本中等學校 氷上選手權大會스피—드競技第一日은卅九日午前九時부터 靑森縣八戶長根 링크에서 열리엇바 降雪과氣溫上昇으로『컨디순』不良한 가운데 千五百米 레—스로부터行하엿는데 이에出場한 鄭庚彦(甘白商業)君은 千五百米에二着을 占하엿다

【千五百米】1內藤(苫工)二分五五秒五 2鄭庚彦(甘白商) 3小松(諏訪蠶)

今日重要論文及記事

面	頁	論文及記事	
本紙	一	世界政局의趨移	徐椿
同	二	日本政局의前途	金炯元
新年號其二	一	戰時體制下의政治運動	韓晳容
同	三	支那事變全貌	咸尙勳
同 其三	一	非常時局과朝鮮經濟	
同	三	事變下의財政經濟	李健赫
同 其四	一	死線에浮沈하는歐洲	
同	三	教育朝鮮의새炬火	
同 其五	一	다시본農振運動	
同	四	내故鄕敎育功勞者	
同 其六	一	敎育令改正과우리希望	
同	三	大衆保健과體力向上	
同 其七	一	어린이에게	
同	三	評論家對作家一問一答	

以上

謹賀新年
昭和十三年元旦
朝鮮日報社
朝鮮日報社員一同

江華邑內
朝陽紡織株式會社
電話江華三五四六番

朝陽紡織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洪在然
自宅 京城竹添町三ノ三 電話③一、三三四番
會社 江華邑內 電話江華大三四、三五番

江華窯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洪在龍
電話江華三六四五番

賀正

京畿道道會議員
金根鎬
電話江華二一番

江華合一普通學校
校長 吳永燮
電話江華二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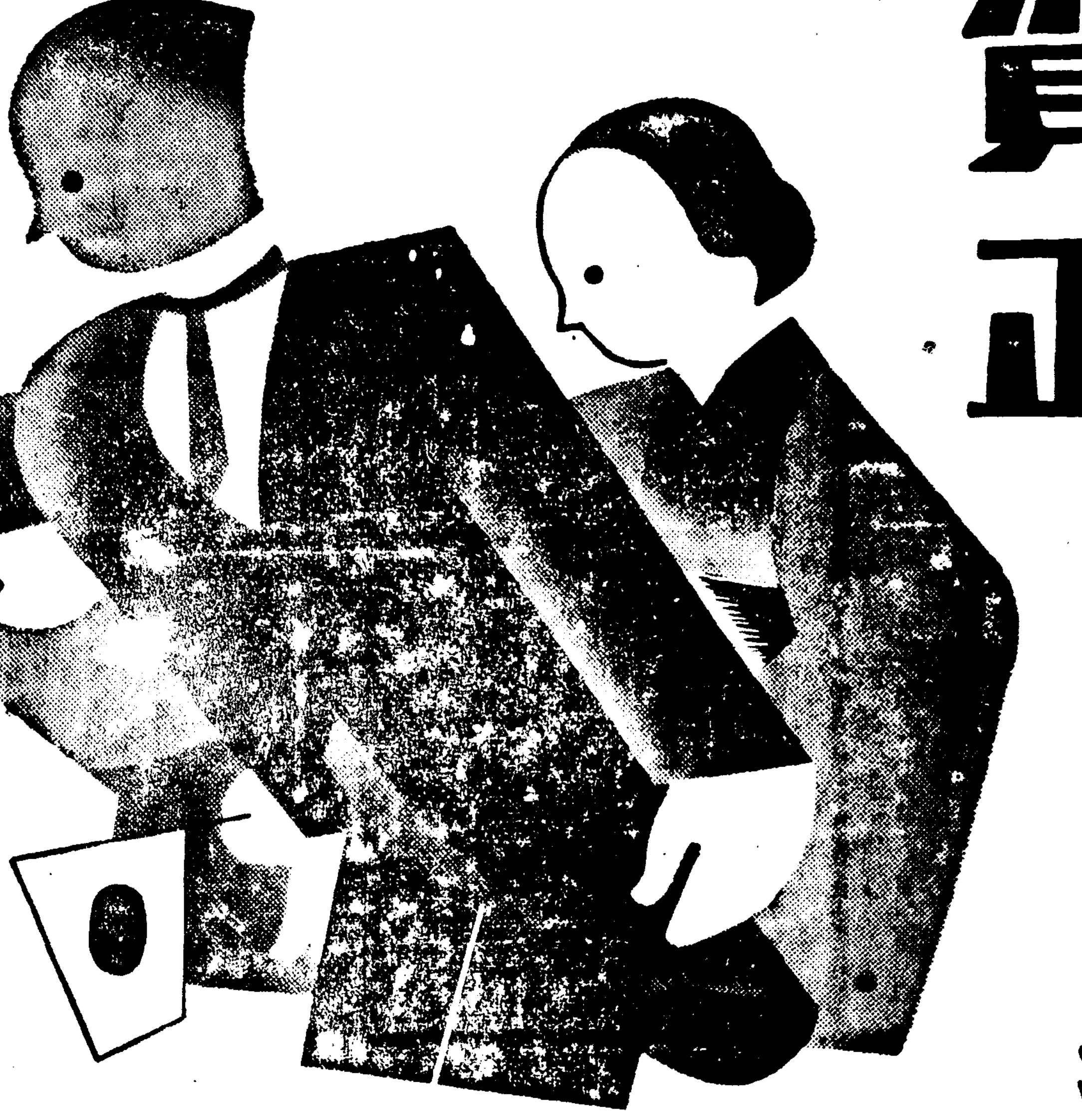
木曜會
主席 琴徹
電話江華二二番

賀正

새로운 頭痛藥

明快한頭腦가되는

ノーシン (노—신)



다갓치遙拜

얼마나깨끗한氣分입니까! 皇威東亞에넘치는昭和十三年의多幸을約束하는기뿐元旦입니다

正月早早 頭痛과頭腦의疲勞로 흐리멍덩하고잇서서는 안됩니다 速히ノーシン을 먹고 明朗하고爽快한頭腦를만드러주섭서요

ノシン의優秀한點은……

다만 頭痛을速히 낫게하는것뿐아니고 同時에頭痛의疲勞를恢復해서 朦朧한머리를明快케하는獨特한 藥効를併有해엿는것엽니다

게다가 常用하면神經의 榮養을조케하고心臟을强補하는숨은 効果가잇는故로 날마다 頭腦를酷使하는 現代人의 必需藥으로서 好評입니다

主效: 頭痛・頭腦 / 頭腦疲勞・頭內朦朧 / 宿醉・上氣 / 眩暈・船車醉

藥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錠劑와粉末) 全國藥店과파—트에잇슴

製造發賣元 荒川長太郎合名會社

尹致昊

三橋孝一郎

林繁藏

朴榮喆

韓相龍

金季洙

林茂樹

西亀三圭

朝鮮信託株式會社
谷多喜磨

警務局
古川兼秀

松澤龍雄

佐伯顯

警務局
伊藤泰吉

井坂一良

金大羽

朴興植

崔楠
東順醫

賀正

明珍錫

武者錬三

見目德太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石川登盛

京城三越
支店長 三輪邦太郎

趙寅燮

李鍾萬

中野竹二郎

大澤商會京城支店
相羽恒次

外科 整形外科 X光線
醫學博士 吳一承醫院
電話③光化門二八五一
栗[illegible]町九五

年賀狀缺禮 御諒
咸錫泰
咸錫泰齒科醫院
京城府三角町一番地
電話本局2六〇六番

株式會社 廣昌商會
社長 趙善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百九番地

京城府中林町一四〇番地
白金金銀 寶石細工 美術製作 商門
金東完商店
振替京城一四二一一番
長電話本局2二二七八番

朝鮮麥酒株式會社
山上欽三

麒麟麥酒株式會社京城支店
八坂卯三郎

朝鮮油脂株式會社
松本伊織

三國商會
土井誠一
京城府南大門通

孫鍾洙

朴吉龍
京城府公平町五九番地

東亞金銀商會
金泰彦
京城鍾路四街里
電話光一二二三

朝鮮無線工學講習所長
曺光云
京城府蓬萊町一丁目八三
電話本局2三〇六五番
電話本局2七〇〇番

株式會社宋祥九商店
宋祥九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七番地

鍾路洋服店
李斗鎔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三番地

合資會社 京城ゴム工業所
金明煥
京城府岡崎町五
電話龍山(4)長八八一番 二二七二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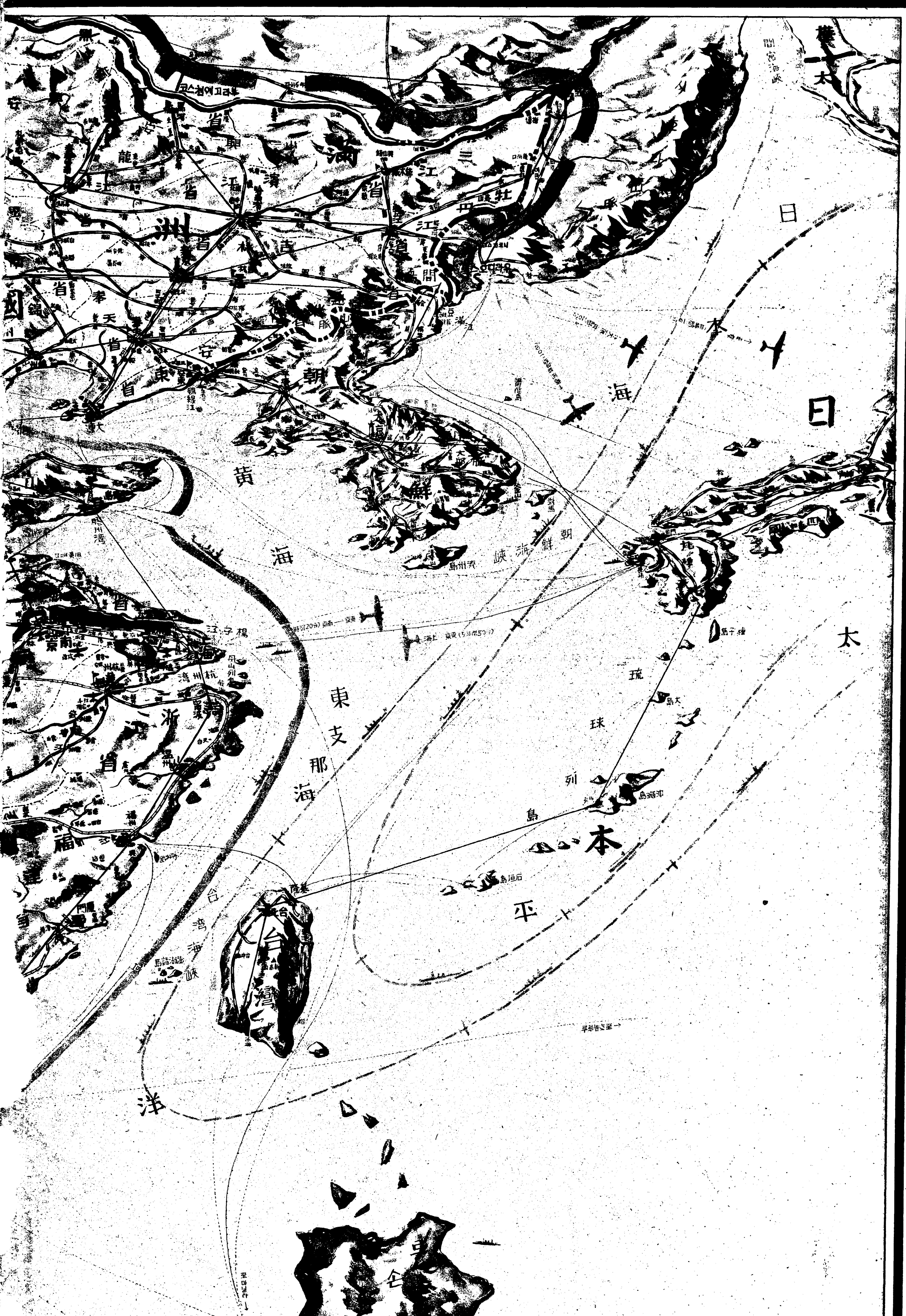
朝鮮日報

新年號 其一

皇軍이占領한長城

帝國勢力下의上海

支那事變參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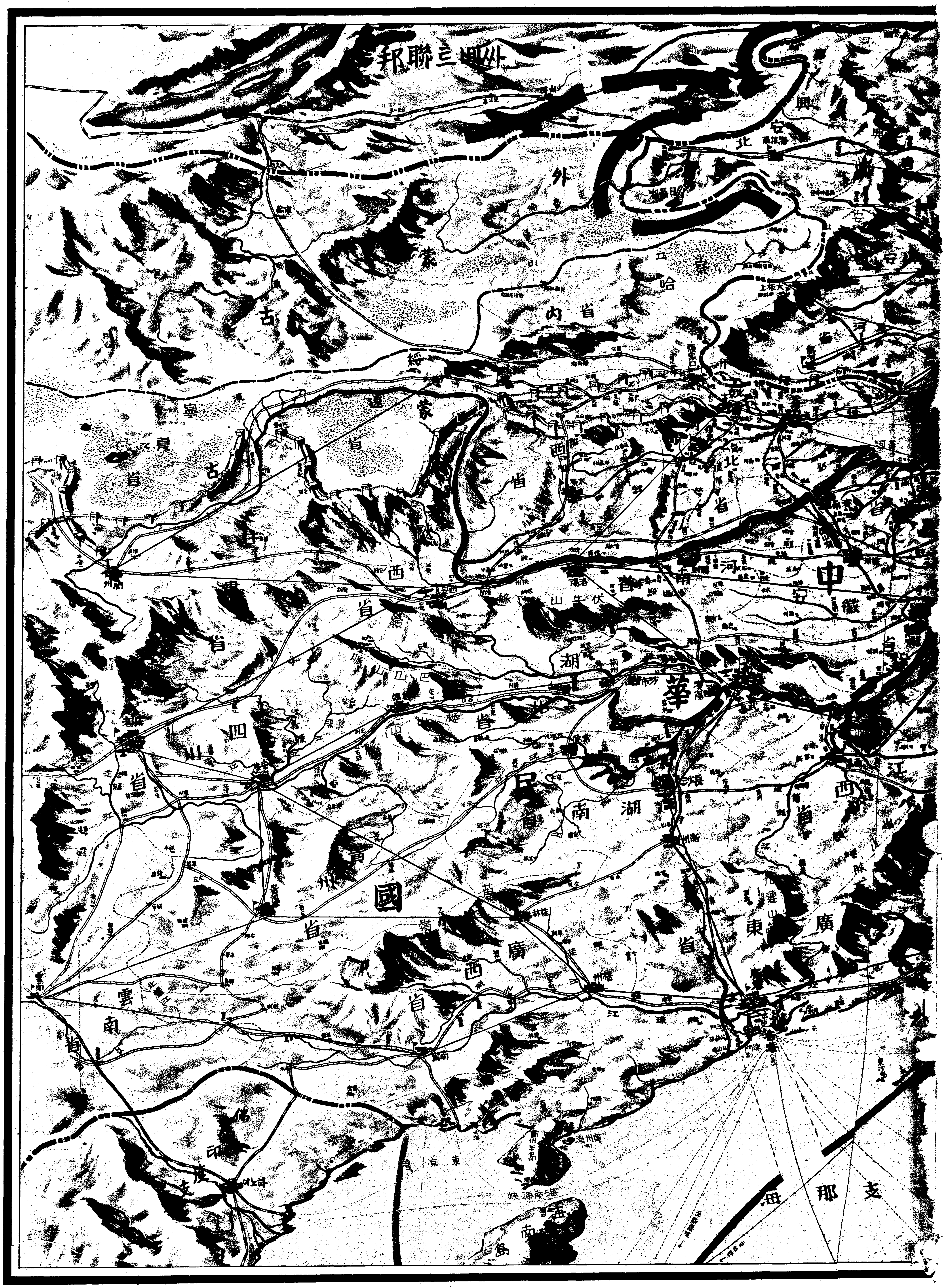


凡例

國界
地方界
省界
鐵道及未成線
航空路
航路
海底電線

運河
大都市
主要都邑
首府
省政府所在地
砂漠
軍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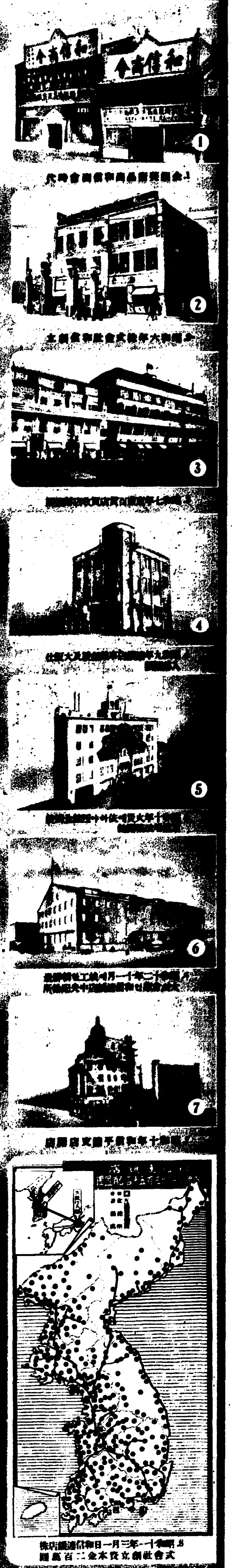
無線電信局
海軍防禦線
支那空軍根據地
蘇軍隊據


外
蒙
古
察哈爾省
綏遠省
寧夏省
甘肅省
陝西省
山西省
河北省
河南省
湖北省
四川省
湖南省
貴州省
廣西省
廣東省
雲南省
江西省
安徽省
中華民國
伏牛山脈
巴山山脈
北京
張家口
洛陽
成都
桂林
梧州
衡州
廣州灣
雷州半島
瓊州海峽
海南島
東京灣
佛印度支
南支那海

여러분의百貨店·和信·京城本店·平壤支店

조흔물건싸게파는 ← 全朝鮮和信連鎖店

謹賀新年



和信發展의跡

大同興業株式會社

土地建物及
農場經營

社長 朴興植
支配人 李元植
京城·鍾路
電話(光)四〇〇番

全朝鮮一千連鎖店總本部
和信連鎖店株式會社

社長 朴興植
支配人 尹宇植
本社 (京城鍾路二丁目 代表電話(光)四〇〇番)

株式會社 和信

社長 朴興植
專務 李基衍
本店 (京城·鍾路 代表電話(光)二八〇〇番)
平壤支店 (平壤·鍾路 代表電話二一〇〇番)

鮮一紙物株式會社

和洋諸紙都賣元
新聞捲取紙輸入元

社長 朴興植
專務 李奎載
本社 (京城·鍾路 代表電話(光)一〇二〇番)
釜山支店 (釜山榮町一丁目三七 電話[illegible]七二七番·三七七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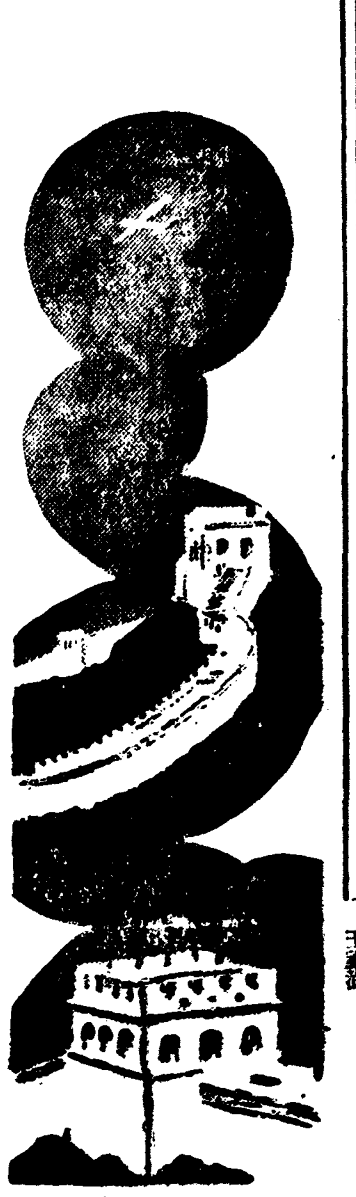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益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東京·大日本印刷株式會社印行

朝鮮日報
新年號 其二

大藏省顧問制實施

戰時體制下에 財政經濟機構를 强化하기爲하야 大藏省顧問官制案이 去二十一日 閣議에서 決定되얏는데 顧問으로 勅命될人物은 如左하다
鄕誠之助男、池田成彬、結城豊太郎、深井英五、各務謙吉、兒玉謙治



戰時體制下의 政治·軍事·行政

戰爭의 目的은 勝利! 勝利엔 무엇이 必要?

國家總動員的銃後의陣營

韓普容

戰爭의目的은 勝利에잇다。戰爭을始作한以上 勝利하지안흐면안된다。

그러나 戰爭이라는것은 軍隊가銃칼로 서로殺傷하거나 軍艦과 軍艦이 砲擊하고 衝突하는것뿐이아니다。特히 近代戰爭에잇서서는 戰場에서 軍隊와軍艦이衝突하고 飛行機나戰車隊가 破壞하는同時에 雙方交戰當事國은國家的精力 全部를드려서 戰爭勝利를 爲하야有効하게 發動하지안흐면 안된다。

○◆○

『戰時體制』編成이라함은이國家的精力即 그國民이갓고잇는 모-든『에너지-』를 가장有効하게發動할수잇도록 編成한다는말이다。

平時에잇서서는 一國의政治體制를 決定할때에 반드시戰爭勝利만을目標로하는것은아니다。個人自由를保障하기爲한것도잇고文化建設을 助成하기爲한것도잇다。그러나 一旦戰爭이 勃發한때에는 이러한要因은 적어도 第二次的으로 取扱되게된다。그리고 第一次的으로 取扱될問題는 그어느것을 莫論하고 그全部가 戰爭을 爲한것이 되지안흐면 안된다。

이 重大한目的을 達成하기爲하야는 무엇보다도 먼저 統一的政治意識이 必要하고 이統一的政治意識에따라서 即刻으로 實行할수잇도록 모든機構가 組織되어야한다。다시말하면 國家의全機構가 中央集權的으로 되여야한다。英國이나 佛蘭西가튼 比較的 自由主義的 民主主義的勢力이 强한나라에잇서서도 大戰中에는 그政治機構가 高度的으로 集權化되엿고 統合化된것은 戰爭을爲하야는 이러케되지 안흘수업다는 左證으로 볼수잇다。

○◆○

滿洲事變을契機로『非常時』라는말이 크게 流行되엿다。『準準戰時體制』라는말은 再昨年가을 當時의 大藏大臣 馬場鍈一氏가 三十億의 彪大豫算과 此에伴한 三億圓의 大增稅計劃을 發表하게 되든때에 頻頻히 使用한말이다。그리고 지난七月 芦溝橋事件이 勃發하게되자『戰時體制』라는말이 널이使用되게된것은 누구나 周知하는바이다。

非常時、戰時體制는 平時로부터 戰時로 옴머가는 期間을말함이오、그情勢에 對應할準備로 政治機構및 軍事行政의 改編을 意味한다。이것을 一言으로말하면 集權的 統合的 强力政治의 實現이라할수잇다。그리고 强力政治의 必要는 事變勃發에따라 그絕頂에 到達하게되엿고 長期抗戰과아울러 去益强化케되엿다。그러면 平常時로부터 非常時를거처서 超非常時 即 事變下의 戰時狀態에 이르기까지의準戰時體制로는 어떠한問題가 論議實施되엿스며現下戰時體制로는 어떠한機構

織이 實現되어야할가?

○◆○

政治體制의 集權的强化에必然的으로 隨伴되는問題는 行政府를 될수잇는데까지 立法府의支配로부터 自由롭게하려는問題다。다시말하면 政府로하여금議會의 支配를 적게받도록하려는 問題다 獨裁政治의 弊端은 獨斷的偏見이 그대로實行될危險에잇고 民主主義的議會政治의 弊端은 無用한理論으로 時間을浪費하는데잇다。그러나 直面한難局의對策으로 神速한 政策的斷案을 必要로하는戰時에잇서서는 大過가업는限政策의 迅速決定이 絕對로必要하니만치 長皇한 理論鬪爭은 禁物이다。政黨、議會가近年에이르러 저가티 不振하게된 主要原因이 非常時重壓에잇는것이오 政民兩黨合同論、社大黨解體說、單一政黨樹立論等이 提唱되게된 主要原因도 非常時重壓에 잇는것이오 行政機構改革論이 擡頭하야 各省廢合新設論、無任所大臣設置論、貴族院機能改變論等이 盛行하는 그主因도亦是 事變前後의 非常時情勢에 基因하는것이다。

○◆○

支那事變의 勃發과함께 戰時體制에 드러간以後 最初로注目할만政治機構의 改革은 內閣參議制의 創設이다。

參議制는 擧國一致를 基調로한 內閣補强工作의 示現으로 往年의 外交調査會나 內閣審議會와 類似한것이나 內閣參議는 專혀 支那事變에關한諸[illegible]閣의 [illegible]을 그擴充强化하는것이므로 戰時體制下의 政治機構的特色이 發揮된다。

事變下의 政治機構로 內閣參議制以上으로 重要性을가진것은 企畫院設立이다。

企畫院은 企畫廳과 資源局을 統合한것으로 主로 經濟方面의 國家總動員力量을 調査企畫하는것이니만치 그意義는크다。

十餘日前에 實現된 藏相顧問官制도 內閣補强의 意味로서、財政經濟方面의 强化로 새로운 非常時의 副産物的新制度다。

近代戰爭에는 兵力外에 經濟的戰鬪力이 勝利의 絕對要素가된다。戰爭에必要한 物資를生産하고 費用을 支給하는 財政的戰鬪力이어서는 現代戰爭에잇서 勝利를 期必할수업다。따라서 現下戰時體制下에잇서 特別히 吾人에게 感觸되는것은 統制經濟의 强化政策이어니와 戰時體制를 經濟的으로본다면 結局 統制經濟가되고만다。

○◆○

戰爭에 必要한 經濟力이란『돈』과物件、即 資金과物資에歸着하게된다。그러므로 資金을 確保하고 物資를 [illegible]하여야할것은 勿論이나 戰時에는 調節하려다든가 需給을 圓滑히한다는것보다도 必要가적은곳에 金錢과物資를 消費치안토록하는것이 더욱効果的이다。

例컨대 國內資金을 重要한方面에 使用키爲하야『臨時資金調整法』이 制定되고 資金의 海外流出을 防止하기爲하야『外國爲替管理法』을 改正强化하고、不要 不急한의物品에는 輸入을 制限하는意味에서『輸出入品等에關한臨時措置法』을制定하야 或種物品은 輸入禁止도 하게되엇다。또國內消費를 制限하기爲하야는 國民的消費節約運動以外에 鐵材까지를 使用制限하는 法律以外의 行政上措置로 實行되는 部分도 적지안타。其他 物價對策이니 暴利取締니하는것도 戰時體制下의 統制經濟上 特殊的役割을 하게되는것이다。

戰時體制下에잇서 軍事行政을經濟的으로 强化 統合化하는機關은大本營이라할것이다。

○◆○

大本營은 戰時體制의 完璧的機關이다。大本營은 天皇의大纛下에잇는 最高의 統帥部를 指揮하는말이니만치 絕對的權能을 가진機關으로 國家非常時에만 設置하는機關이다。日淸戰爭時에도 大本營이 設置되엿섯고 日露戰爭때에도 大本營이 設置되엿다。이번設置된 大本營은 軍部의主張대로 純然한 統帥機關으로되야 陸海軍의 作戰一元化를 中心目的으로하는것이나 設立直前에는 統帥와行政을 併行强化하야 外交戰、經濟戰、思想戰에他事變完遂를爲한 政治行政의 모든機能을 이機關에 包含賦與하려는 論議도 相當히强하엿다。

天津、北京、上海、南京等重要地帶의 陷落占據와 中華民國臨時政府의 樹立 誕生에依하야 支那事變도 一段落지엇다고 生覺할수도 잇을지모르나 國民政府의 長期抗戰方針에는 何等變함이업고 政府當局에서도『本格的戰爭은 이제로부터』라고 警告하여슬뿐아니라 內外情勢에 鑑하여도 容易치 안흐니만치 新年이되드래도 超非常時對處策은 去益强化될것이므로 一般民衆은 戰時體制下의 政治的 軍事的 行政的動向을 正確히 認識하고 此에順應할 準備와覺悟가 잇서야할것이다。

事變體制의 完璧 大本營遂出現

純粹한統帥機關으로

支那事變의 勃發、擴大를따라 近衛內閣은 이에 即應한 政治機構를 整備하고저 企畫院設立 內閣參議制設置等 內閣補强工作에邁進하얏다함은 周知하는바이어니와 이로서는 아직事變의最終的目的을 達成함에는 遺憾된點이잇스므로 此際大本營을 設置할것이라는 議論이 擡頭하게되엿다。이大本營設置論의 發源地는 軍令系統 特히參謀本部側에잇서 第七十二議會에서 中野正剛氏가 大本營設置를 主唱한것도이를反映한것이라고 傳한다 이陸軍側의一角에 擡頭한 大本營設置의要望은 戰局의 進展을따라漸次各方面에 反映唱導되게되엇는바그것이 設置되기까지에는陸海軍部內 또는閣內에 贊否兩論이 對立되고 大本營그自體의機構에 對하야서도 議論이不一하얏다。

一部에서는日支紛爭은『事變』으로『戰爭』이 아니라는 見解에서 法理論上 이번事變에 大本營條例를 適用할수업다는 議論이잇섯스나 緊迫必要한 事實아페 이러한 對內的法理論은問題가 되지안코 도이번事變이 名稱은『支那事變』이로되 實質的으로는 擧國의 大戰爭이라는 議論이有力하야 法理論的疑義는 確固不動한 事實아페 克服되엇다

그리고 大本營의 機構에對하야 陸軍側에서는 이를 어데까지던지 純然한 統帥機關으로할것이라고 强硬히 主張하고 近衛首相側近의 有力側에서는 事變을 圍繞한 內外情勢의 重大性에 鑑하야 이를 政治와 作戰을 一元化하는 機關으로 하고 그機構內에 軍人以外 首相等의 參畫을 認하야 말하자면 軍政府的機關으로할것이라고 提唱하며 또 海軍部內에 宣戰布告를要한後 純然한 統帥機關인大本營을 開設할것이라는 主張도 잇섯다。그러나 結局 陸軍側의 强硬論이 貫徹되어 宣戰布告도 하지안코『事變』대로 純然한統帥機關으로서의 大本營을設置하게되엇다。

그런데 이번의 大本營은 明治三十六年에 改正된『戰時大本營條例』를 準用하는것이아니고 去十一月十七日 從來의 戰時大本營條例廢止에關한勅令과 함께 軍令으로 公布된『大本營令』에 基하야 同二十日 宮中에 設置하게된것으로 大本營陸軍部는陸軍省에 海軍部는 海軍省에 두게되엇다。

그리고 이번의 大本營이從來의 戰時大本營條例와 다른點을 들어보면

一、戰時大本營條例는 勅令으로 公布되엇섯는데 大本營令은 軍令으로 公布된것

一、從來의條例는『戰時』大本營條例로되어 戰時에만 適用할파가티 解釋되므로이번에는『大本營은『戰時』又는『事變』에際하야 必要에 應하야 이를 設置함』이라는 明文을 挿入하야 事變에도 適用하는旨를 明白히한것

一、따라 名稱을 戰時大本營條例라하얏든데서 戰時라는것을 떼어버리고 簡單히 大本營令이라고한것

等이고 그他는 大體 戰時大本營條例를 踏襲하얏다

그러면 大本營이라는것은 무엇을하는것이며 또 왜 設置되엇는가하면 이는 大本營設置當時 大本營陸海軍部當局談을 들어봄이 便利할것이다

『今般 支那事變에 對處하기 爲하야 大纛下에 大本營을 設置하얏다。이는 이번 事變의 推移에 鑑하야 長期作戰에 備하야 本格的으로 武力을 行使하기爲하야 統帥部를 戰時體制에 옮김이 適當하다고 認定하기때문이다 大體 大本營은 大本營令에 明示함과가티 大纛下에잇서서의 最高의 統帥部로 陸海兩軍의 統帥系統及附屬諸機關으로써 編成되어 帷幄의 機務에 奉仕하고 作戰을 參劃하며 陸海兩軍의 策應協同을 圖함으로써 本務로하는데 陸海軍大臣도 또한 軍政을 統轄하기爲하야 所要의 隨員을 다리고 大本營에 參加케한다」그러면『現下와가튼狀勢에 이르러서는 政戰兩略의 一致를 期하기爲하야 大本營과 內閣과의 連絡協調는 特히 緊密함이 必要하므로 陸海軍大臣이 이에 當하는外에 大本營幕僚長과 關係閣僚等은 必要에應하야 隨時會同하야 隔意업는意見交換을 行하고 重要案件에對하야는 御前에 會議를 行하는前例도 採用되는일이 잇슬것이라고 拜察된다』

이를 要컨대 企畫院이라 든가 內閣參議制라든가와 아울러 大本營의 設置는 超非常時局을 當하야 戰時體制의 完璧을 期하는것이다

(非常時局下의 [illegible] 議事堂)

企畫院을新設코

國家總動員準備

먼저 內閣補强工作의 一端으로 企畫院의 設立을들수잇다。企畫院은 企畫廳과 資源局을 統合하야 새로 設立한것인데이 企畫院을 設立하게된事情을 알려면 爲先 企畫廳과 資源局에 對하야 살펴보지안흐면 안될것이다。

企畫廳은 岡田內閣當時에 創設된 內閣調査局으로부터 强化擴大된것이다。이 調査局으로말하면 非常時局을 爲하야 이를 打開하기爲한 重要國策을 審議함에 그創立趣旨가잇섯다。그러나 그職務權限이 內閣과의關係에잇서 明確을 缺하야 自然 그調査審議도 運捗되지아넛다。그런데 二、二六事件으로 岡田內閣이 倒壞되고 廣田內閣으로되자 調査局을 再編成하야 企畫廳으로 고치어 從來調査局의 缺

點을 補充하기로되어 林內閣때에 드듸어 그實施를 보앗다。企畫廳으로된後는 殺分 內閣과 疏通의 길이 열리고 各種重要國策에對한 審議權限이 擴充되어大局的見地에서 各省提案의 適否를 審査하고 國策의綜合統一豫算의調査等을하게되엇다。그러나 이企畫廳도 別로 신통한成果를 엇지못하얏다。林內閣이 瓦解되고 近衛內閣이 드러선後도 總裁人選問題로 한바탕 떠들뿐 자칫하면 有名無實의 非難을 밧게되엇다。그런데 支那事變이 勃發하야 諸般重要國策이 山積하고 그重要國策이 殆半 事變을 中心으로하고 國防을 主로하야 計劃되지안흐면아닐 情勢에이르러 그範圍가 國防計劃 또는 이와 關聯한 諸般計劃에까지 미치게되어 企畫廳의 일은 重且大하게되엿다 또 이러한 일의 範圍擴大는 資源局의 일에 까지 미치어 일의 重復、計劃의 矛盾을 이르킬 念慮가 不無하게되엿다。資源局이라는것은 國家總動員準備를 爲하야 昭和二年五月 第二次若槻內閣當時에 設置된것이다。今日까지 平時에잇서서는 그存在까지 히미하얏스나 그래도 一朝有事之時에 備하야 諸般의 人的及 物的資源의 調査研究를하야왓다。그런데 事變의 勃發로 이것이 實地로 活躍할때가왓다。事變을 當하고 보니 일으로나 그範圍가 擴大되게되엇다 各種의 資源을 統制 運用하야 國力을 最高로 發揮하려면 重要國策에까지 考慮가 미치지안흘수업다。이에 企畫廳과 資源局間에 일의 重復、矛盾이 생기게되는것이다。그리고 從來와가튼 各省割據對立으로서는 重大時局에 處하야 重要國策의 樹立運用에 여간한 支障이 아님으로 그相剋摩擦의 緩和防止가 또한 切實히 痛感되게되엇다。

이리하야 此等의 諸矛盾을 圓滑히 解決하야나갈 國務統合機關의 設置가 要請되게되엇스니 企畫廳의 擴大强化가 問題에 올라 去十月二十五日 드듸어 企畫院官制를 公布하는同時에 總裁 瀧正雄氏를 爲始하야 次長、部長의 發令이잇서 이에 企畫院의 設置를 보게되엇다。

이企畫院의 權限을보면 企畫院은 內閣總理大臣의 管理에屬하는것으로 平戰時에 잇서서의 國政統一에 資하고 또平戰時에 잇서서의 綜合國力의 擴充運用에關하야 立案하고 閣議에 提出할 重要案件의 大綱을 審査하야 內閣總理大臣에게 上申하게되엇다。그리고 從來 資源局의 일이 包括되어 國家總動員計畫에關한 일도 行하게되엇다

(P記者)

企畫院總裁 瀧正雄氏

時局을收拾코저 內閣參議制設置

다음에 內閣補强工作으로 內閣參議制가 設置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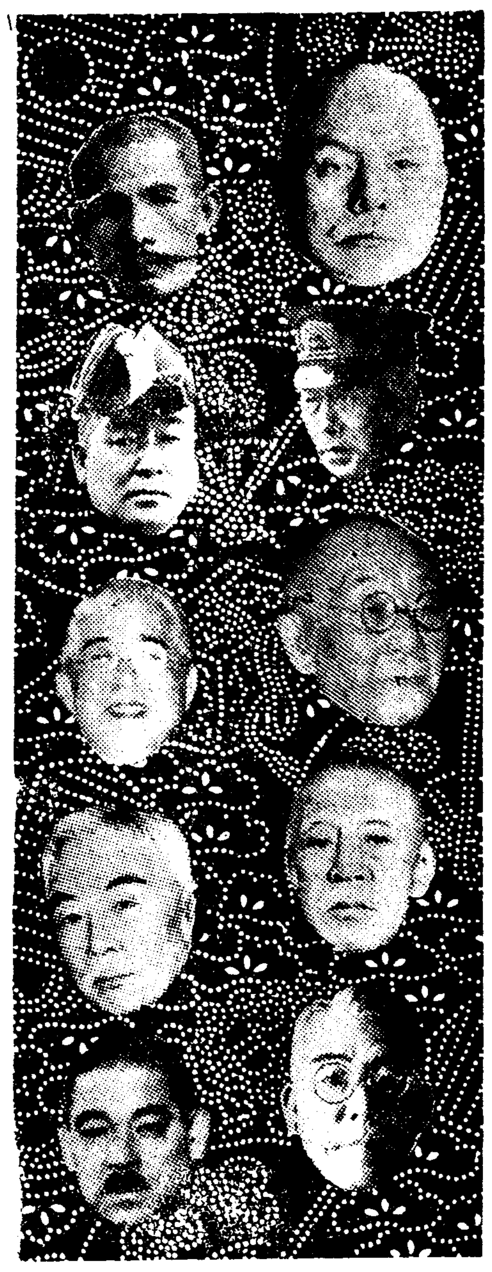
그間에 諮問機關案 內閣改造案 無任所大臣案等이 順次로問題에 올랏스나 모두 困難한事情이잇서 實現을보지못하고 最後로 參議案이 俎上에 오르게되엇는데 이案의 端緖는 去九月의 臨時議會에서 近衛首相이『政府는 國民 各層의 全智能을 모아 眞實한 擧國一致의實을 擧하고십다。그래서 政府는 그目的實現을爲하야 努力하겟다。』는 意味의 答辯을한데 차즐수잇다 그後 首相은 戰時情勢에 對應하야 時局을 打開함에는 時局收拾機關이 必要하다고 생각하고 參議案을 案出하야 그實現에 邁進하게되엿다 그러나 막상 參議의 人選에着手하야본즉 意外에도 如意치못한바가잇섯다 人選에잇서 무엇보다도 가장큰 難關으로 陸軍의 宇垣、荒木兩巨頭에對한 反對、海軍의 末次大將에對한 反對를 만나게되엇다。이에잇서馬場內相、塩野法相等으로 하야곰 政府와 軍部間에 奔走케하야頹勢挽回에 努力하는 一方 樞府方面의 空氣를 打診하는同時에 首相自身도 直接交涉에 當하얏다。

이리하야 難關을 突破코 參衛한 參議를보면 陸軍으로부터의 宇垣一成大將과 荒木貞夫大將、海軍으로부터의 末次信正大將(그後內相轉出로 參議辭任)과 安保淸種大將이 注目된다。宇垣荒木兩大將의 콤비와末次、安保兩大將의 콤비야말로 이번參議制의 一大特色이라할것이다。政界로부터의 町田忠治民政黨總裁와 前田米藏政友會代行委員은當然한 人選이라할것이나 秋田淸氏는 一種格이떠러지어物議가잇섯스나 內閣參議制의 脚本을썻다고하는 秋田定輔氏의 厚意도잇고 秋田淸氏自身 參議制演出의 黑幕의 一人으로 活躍하야參議에 列하게되엇다。外交界로부터의 松岡洋右 滿鐵總裁도 秋田淸氏와가티 格이떠러지는 感이 不無하나 外務省傳統의 外交官과는 色彩가 다른點을 取하야 傳統的인 廣田外交를 補强케하려는 見地에서 參列케하얏다。그리고 財界로부터 産業代表로 鄕誠之助男 金融代表로 池田成彬氏의 選出은 當然하다고볼것이다。

이를보건대 近衛首相이 如何히 國內의 相剋、摩擦緩和에 努力하얏스며 그人選에 苦心하얏는가를 알수잇다。

이리하야 去十月十五日『臨時內閣參議官制』의 公布를 보는同時에 右內閣參議十名의 發令을보앗다。

그러면 이內閣參議制라는것은 大體무엇을하는것인가하면、當初首相이 議會에서 言明한바와가튼國民各層의 全智能을 모흔브레인・트러스트와는 多少 趣意를달리하야 時局收拾을 爲한補强機關으로 支那事變을 中心으로한 時局收拾、戰後의 經營、戰時에 對應한 外交 財政經濟에對하야 首相에게 意見을 進言하며 諮問이잇스면 이에應答하는것이다 이參議制가 岡田內閣의 內閣審議會와 다른것은 審議會가 會議本位이엇슴에對하야 參議制는 個人本位인 點이다。參議는 政府로부터 戰局、그他의情報를어더 國策을 熟考하고 首相은 個別로 參議의 總論과 識見을들어 時局收拾에 資하는것이다 여기에 參議制의 妙味가잇다고할수잇다。



寫眞說明 (超非常時打開策으로政府補强工作의 必要를認定한 近衛內閣은 內閣改造、無任所大臣制實現論等이 잇섯스나 이것도 亦是 即時實現하지못할 形便에 잇슴으로 結局 內閣外에잇서 全智能을 內閣에 助言하는 所謂參議制를 實施하야 內閣을補强하게되엇다(寫眞은內閣參議諸氏)右上으로부터 宇垣大將、末次大將(但內閣就任으로參議辭任)、鄕誠之助男、秋田淸、左上으로부터 荒木大將、安保大將、前田米藏、池田成彬、松岡洋右

藥種販賣 賣藥製造
濟生堂藥房本舖
朝鮮京城太平通二丁目
電話本局 二一七二八 六四五七番
振替京城五一六番

活命水本舖 株式會社 同和藥房
京城府和泉町五番地
電話光化門(長)四八一 二七一九番
振替京城三二八番

賣藥製劑藥種貿易 卸商
漢城藥舘本店
京城府藥園町二〇九
電話光化門三七二八番
振替京城六〇七三番

兒寶 大學膏 本舖
京城藥局
洋藥部 漢藥部 製藥部
京城鍾路一丁目八七
電話光二三七四番
振替京城八三六七番

多忙中一一히年賀의 [illegible] 敢히紙上으로新年을祝賀하나이다
京城府[illegible]町三四
白松藥局
電光二二七五番
振替京城二二九〇二

朝鮮日報社員 諸氏

處方調製 有名賣藥 化粧品等
白松藥局
京城府[illegible]町三四
電光二二七五番
京城二二九〇二番

精力强進劑 蔘茸トニク
製造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鍾路三丁目
電話光化門(長)三三三五 二〇三八
振替京城一九〇七番

肋膜病專門
海雲內科醫院
京城府貫鐵町二二八
醫師 李圭曜
電話光化門二三八六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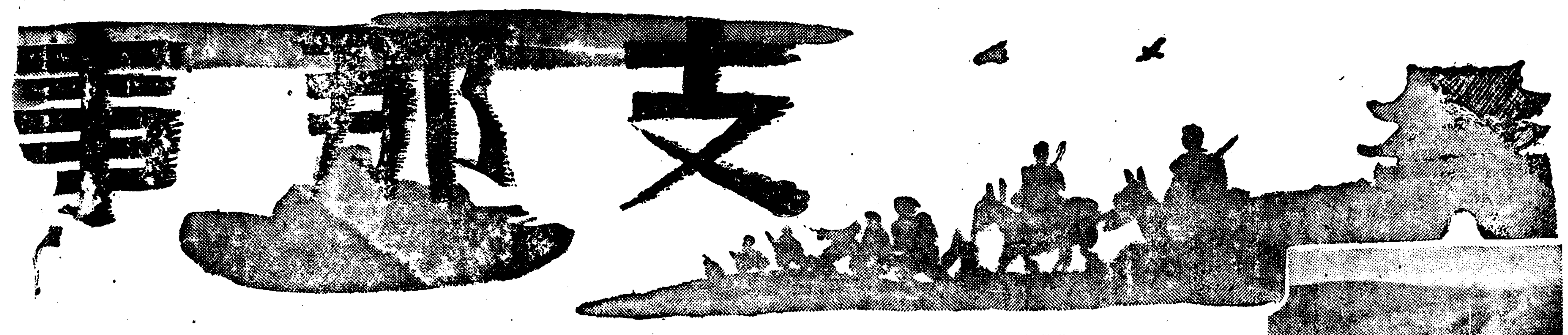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三番地
興一社
興一社委托部

京城府鍾路
洋品百貨店
德永
電話光二三六四番

옷감專門店
九鼎商會
京城鍾路

京城鍾路二丁目
三省聯合新藥研究所
電光(長)八一三番
振替京城二三九二七番

淋疾特効 ゴノミン 鎭痛鎭靜 ブロモヒン本舖
處方調劑 高級化粧品 賣藥製造
不老藥局
京城府仁寺町(天香園前)
電光(3)二六八九番
振替京城二七四五〇番



支那事變의 發端及經過

北支戰線

國民政府下에 支那全土에 瀰漫한 抗日運動은 去年 七月七日夜의 蘆溝橋事件으로 말미아마 마치 燎原의 火와가티 支那全土에 擴大하여갓다 即七月七日夜 我支那駐屯軍의 一部가 蘆溝橋의 北方地區에서 夜間演習中午後十一時四十分頃그 附近에 잇든支那兵으로부터 突然數十發의 射擊을 밧고 即時我軍은 嚴重한 抗議를 한結果支那軍은 蘆溝橋를 撤退한다고 約하면서 依然挑戰的態度를不改함으로 마침내十五日帝國은 一部兵力을 派遣하기로決定하엿다 그러는一方

現地 에서不擴大方針을 取하고잇섯스나 二十五日에 이르러 郞坊事件及 廣安門事件이뒤이어 發生되엿스므로 마침내自衛的行動을 取하기로 決定하고 廿八日부터 第二十九軍에 對한 膺懲戰을 開始하엿는데 同夜에 通州事件도 發生한것이다 蔣介石은 最初京津地方에 我軍의兵力이 少數인것을 奇貨로 中央軍을 北上케하야 張家口 南口의 天險에 兵을 集中하야 察哈爾省에 드러가 內蒙을 擾亂하고다시 一步를 南進하야 滿洲國境을 脅威하는同時에 京津地方의 我軍을 擊滅하려企圖하엿스나 我軍은 大迂廻作戰을 取하야 八月二十四日晝後로부터 張家口를 突破하야 敵軍을 懷來方面에 追擊하엿다 京綏線方面 蔚縣、廣靈、陽高의 防禦線을 突破하고 九月十三日朝에는 大同도 젓사리 陷落되고 山西省首都太原으로 向하야 攻略戰을 進擊하는 一方 綏遠方面에서는 九月二十四日 平地泉을

占領 하고 內蒙軍과 協力하야 綏遠에 肉迫하야 內蒙軍은 十月二日 百靈廟를 奪回하엿다 다음南方의 武川、固陽을占領、十四日에는 綏遠城을 陷落시키고 十七日에는 마침내 包頭를 占領하엿다

山西省方面 應縣城의 天險에 依據抵抗하려든 支那軍이 九月二十九日繁峙가 陷落되고 大營鎭 平型關이 占領되매 마침내天險을버리고다러나게되여 代谷까지 陷落하고마럿다 我軍은 忻口防禦陣을 攻擊하는一方 東方省境娘子關으로부터 運入하야 十月二十六日 이를 擊破하고 十一月九日朝에 山西省首都太原도 攻擊開始以來 滿二個月만에 드디여 陷落시켯다

京漢線方面 支那軍은 主力을 北上시켜 永定河 右岸에 陣을 굿게치고

良鄕 固安、永淸의線을 確保하고잇섯스나 我軍은 京漢線에沿하야 進擊을 開始하야 九月十八日 涿州에서 一擊을加하야 保定陣地에 潰走케하엿다。

敵은 保定에서 我軍을 阻止하려하엿스나 二十四日 이것이陷落되는同時에 그本陣正定도 二十六日占領되고 十月十日에는 京漢線의要衝石家莊을 占領、다시 南進하야 邯鄲을 占據하고 十一月四日에는 河南省北部要衝인 彰德도確保하고마럿다

津浦線方面、이方面에서는 子牙河支流를 건너 九月四日 唐官屯의 戰鬪를 經하야 十一日 馬廠을 占領하엿다 我軍은 다시 追擊에 옴겨 河間、滄州를 占領하고 十月三日에는 德州를 占領하고 十四日 平原에서 敵에大打擊을주고 黃河北岸에 到達하야 十二月二十六日 南으로濟南을 占領하기에 至하엿다

中支戰線

北支事態가 漸次惡化의 一路를 밟어 兩軍에 戰火가 交하게되매 八月六日南京에서 支那全國國防會議를 開催한結果 對日開戰不可避의 形勢로되여 上海方面의 空氣도 緊迫을 加하여오든바 八月九日夜의 大山事件으로 마침내重大化하엿는데 十三日朝北四川路와 北停車場의中間地區에서 我陸戰隊와 支那軍과 衝突이생기고 繼續하야 午後八字橋에서 陸戰隊一部를 攻擊하여왓스므로 비로서戰端은 버러지고마럿다 翌十四日에는 支那飛行機가 爆擊하여왓스므로 事態의 惡化에依하야 帝國은陸軍을 中支方面에 派遣하기로되여 八月二十三日 陸軍部隊는 海軍과 協力하야 羅店鎭方面의 揚子江岸과 吳淞方面에 [illegible] 斷行하엿다 [illegible]

陷落 되고 [illegible] 十一月五日未明에는 我新銳部隊가 杭州灣으로부터 敵前上陸을 敢行하야 [illegible]

외국인 부인기자 (사진 설명, 일부 판독 불가)

明 또我軍이 白茆口로부터 上陸 [illegible] 南北約六百八十浬에 亘하는 支那沿岸에對하야 支那船舶의 出入及 그區域內의 航行을

進斷 한다는 宣言을發하고 [illegible] 十二月五日에는 吉田〇〇艦隊司令長官의 名義로써 北支那沿岸에 이를擴張하엿다 이때문에支那의 武器彈藥、軍需品의 海上輸送이 不可能하야 貿易은 杜絶되고 關稅收入은 減少하야航運은 長江及內河를 除하고全然停止되엿다 (O生記)

海空軍活躍과 航行遮斷

[illegible]

支那事變 全貌

北支事變에서 支那事變으로

昨年 七月七日 蘆溝橋에서 勃發한 日支兩軍의衝突事件은 實로 極東、아니 世界를 震撼한 大事件이 잇섯다。이事件이 勃發하자 帝國은 事件의 不擴大方針을 세우고 支那에 對하야 責任者의處分、陳謝를要求하얏스나 支那國民政府는 이것을拒否하고 二十九軍에 武力抵抗을 命하얏을뿐아니라 中央軍을 擅히 北上케하야 日本軍에 對抗케하얏다。게다가 八月十三日 上海에서 이러난 大山大尉事件은 分明히 支那의 全國的으로 蔓延한 排日思想의 現顯이므로 帝國政府는 不擴大主義를 膺懲主義로 고치고 北支事變을 支那事變이라 改稱하야 全面的 戰鬪를 開始키로 되엿다。이리하야 北支에서는 平綏、京漢、津浦의三線으로 中支에서는 上海를 中心으로 滬寧、滬杭三方面으로 南支에서는 主로 廣東을 中心으로 支那의 諸都市及 施設을爆擊、占領하얏다。

聯盟과九國會議

그러매 支那國民政府는 即時 海牙使臣을 시켜 日本의侵略的이임을 宣傳하고 聯盟規約 第十條 第十一條에 違反된다하야 第十七條制裁規定 適用을 要求하얏다 聯盟理事會는 이것을 二十三個國聯盟委員會에 移牒하고 二十三個國聯盟委員會는 다시 九個國條約會議를 召集하기로 決定하얏다。一九二二年華府에서 日英米佛伊和蘭等 支那에 利害關係잇는 九國이支那의 領土的、行政的主權을 擁護하자는 意味에서 會合、締結한 條約으로 그後 七、八個國이 加盟하야 벨르사이유條約에 버금가는 큰條約이다이에 加盟치안흔 蘇聯까지 加盟한九個國會議는 十一月三日白耳義首都 브랏셀府에서 열리어 日本의 會議出席을 要求하고 日本이 이에 不應하자 日本을 非難하고 日本軍의 支那撤退를 要求하얏다。他方支那는 蘇聯과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直接、間接으로 援助를 바들뿐아니라 國內的으로는 容共策을써서 共産黨과 國民黨의 合作을 益益 鞏固히 하얏다。

北支五省占領과 上海、南京의陷落

그러나 帝國의 方針은 確乎不動하야聯盟이며九個國會議가 如何한 抗議를 하거나 蘇聯과英米가 如何한 對支後援과 對日妨害를 하든 [illegible] 갈줄이업섯다。[illegible] 山西、

米蘇의 自重으로 英國도 束手無策

但 英國策動은 依然繼續

今回 支那事變은 滿洲事變때에 比較하면 여러가지로 相違한點이잇다。그가장 顯著한것으로는 滿洲事變時에는 聯盟決議文에 나타난바와가티 帝國에 好意로는 同情을 가진나라는 거의업섯스므로 不得已『榮譽의孤立』으로 自國의正當함을 주장하지아니치 못하게되엿섯든合에 反하야 今回事變에잇서서는 獨伊를爲始하야 列國中에는 日本의 對支行動에 好意를表示하고 支持的態度를 取한나라가적지안타。

獨伊佛

支那事變에對한 列國의動向으로 注目할만하고 또 一般이注目하는나라는 英、米、蘇三國에 不過하다。勿論 獨伊兩國이 이번事變에 對하야 顯然히 만흔役割을 하고잇는것이 事實이나 此等兩國은 上述한바와가티 日本을諒解하고 日本에 同情하는 特殊的好友關係에 잇을뿐아니라 今回事變은 容共國府의 膺懲行爲이니만치 日獨伊三國協定成立의精神에立하야 積極的으로도 支持하고잇스므로 여게서 論할必要는 [illegible]

『리-더』가되고 또 어느나라보다도 甚하게妨害한者는 英國이다。英國이 支那事變에 最大關心을 갓게되는것은 對支權益이十二億弗의 巨額에 達하여잇다는 事實에만 基因하는것이아니라 蔣介石政權自體가 其實은英國資本과 緊接不可離關係에 잇는까닭이다。

英國은 中部及 西南支那에重大한 經濟的利害關係를 가저올뿐아니라 支那의 幣制改革、鐵道其他의 經濟的事業에 注力하야 마치支那의事業은 英國에서獨占한觀이잇다。

이와가튼 英國資本(勢力)의支那進出은 日本의大陸政策과 兩立할수업는곳에 事變勃發의 한가지主要한原因이잇다。그런데 今回事變에依하야 蔣介石政權은 沒落의 運命에 直面하게되엿스므로 英國은 이것을救出하는 方途를日本의 軍事行動을 阻止하는데잇다하고그方法發見에 血眼이되여잇다。그리하야 英國은 傳統的인 集團的平和保障政策을 積極으로 他列國을 誘引하야 對日牽制에

合衆國의 傳統的 對中政策이다。그러나 米國은 經濟的投資方面에잇서서 英國의 六分之一(二億弗)에 不過할뿐아니라 大戰後特히滿洲事變干涉에失敗한後 米國輿論은 戰爭廻避의 思想이高調되어 中立法制定까지 보게되엿다。『米國外交의基調는 米國自體의 利益에 두지안흐면안된다』라는『워싱톤』의말은 米國外交政策의 根本原則이다。따러서 事變勃發以來 英國이 그가티 米國誘引을 꾀하엿지마는 米國輿論은 道義的支持에 不過하고 積極的行動과 責任잇는 言質은 도모지 주지안엇다。그러나 이러타고 米國을 等閑視하여서는 안된다。米國人은 언제變심하는 國民이다。國民輿論을 指導하는 新聞論調도 그러하다 따러서『파네이』號事件가튼것이 再發되는境遇에는 米國輿論은 어떤 方向으로 달려갈지推測키 難하다는點에 特히注意할必要가잇다

蘇聯

蘇聯과의關係는 英米兩國과다르다。蘇聯邦은 支那事變有無에 [illegible]

聯盟提訴도 虛事 九國會議도 失敗

解決方途는 直接交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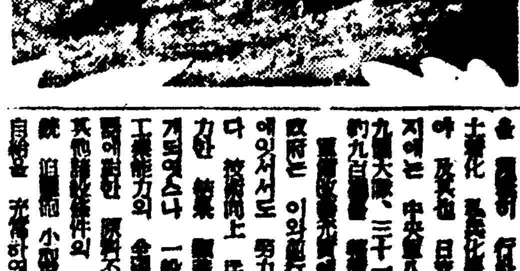
支那事變이 擴大되자 國民政府는 八月十六日附로써 帝國以外의 九國條約關係國政府에 對하야 援助를要請하는 覺書를 提出하엿다。또 八月十九日 [illegible] 支那政府가 聯盟에 對하야 提訴하리라는것은 旣定的事實이엿는데 果然支那政府는 八月三十日에 在재네브 何傑才代表를通하야 日支紛爭에 關하야 聯盟에 提訴하얏다。또 九月十二日에 이르러는 顧維鈞首席代表로 하여금 正式으로 聯盟에對하야 提訴書를 送告하엿다。그通告의 要旨는 日本의 行動은 聯盟의 一員인支那의 領土保全과 政治的獨立에 對한 侵略行爲이기때문에 聯盟規約 第十條、第十一條 및第十七條에 基하야 對日制裁를 要請한다는것이엿다。顧維鈞은 右提訴의 報告와 함께 日本軍의 行動을 極力 誹難中傷한 提訴理由說明書를 提出하엿다。그러므로 九月十六日 聯盟理事會는 支那側의 提訴를 討議한結果 지난昭和八年에 滿洲事變의 解決을 斡旋케하기 爲하야 任命되엿든 廿三國諮問委員會에 그措置를 一任하게 되야 諮問委員會에서는 九月廿一日부터 長時間 審議를 거듭하다가 廿七日에 마치내 全會一致로 日本軍의 都市爆擊을 非難하는 決議를 採擇하엿다。또 聯盟總會는 十月六日 即 루즈벨트大統領의 聲明이 잇은 翌日에는 滿場一致로 日支紛爭에 關하야 다음과가튼 決議를 하엿다。即 (一)九國條約會議를 可及的 速히 招集하야 日支紛爭解決의 方法에 對하야 協議할것 (二)日本은 正當한 理由없시 九國條約과 不戰條約을 犯하고 支那에 侵入한것으로 認함 (三)支那에 對하야 精神的援助를 줄것을 表

[illegible] 加盟인 볼리비아、기츠、墨西哥等의 五國과 또非加盟國이나 極東에 關係가 기픈者라하야 特히 招請을 바든 蘇聯을 加하야 合十九個國이오 當日에는 日本의 斷乎한 參加反對와 獨逸이 非加盟國의 介入의 不合理를 主張하고 出席을 拒絶하기때문에 最初부터 會議는 暗影을 주엇다。會議 第一日에는 데비스米代表 이든英代表 델보스佛代表等의

意見交換이 잇섯스나 結局 何等의 具體的成案을 엇지못하고 二十二日부터 最後의 全體會議를 開하게되엿는데 英、佛、蘇等의 各首席代表는 歸國하야 도라오지안코 브뤼셀에는 重要한人物은 오직데비스米代表一人밧게 남아잇지안엇다。九國會議는 二十二日부터 再開하고 [illegible] 十一月三日 [illegible]

『日軍占據南京』의 아드바룬 (天津)

[illegible]



[illegible]

重要都市占領日

天津 七月三十日
北平 八月八日
[illegible]月十三日

京城府鍾路四丁目
大光產業株式會社 光二一三三 二五一九番

京城府長沙町二三三番地
ヒカリタクシー株式會社 光一六七五 七五九番
自動車修繕工場株式會社
ヒカリモータース 光一四六三 三八四番

江華郡府內面新門里二〇五番地
江華釀造株式會社 江華一一番
江華分工場 江華一〇番

李天應

京城 鍾路
永保合名會社

京城府中林町一五〇番地
太平商工合資會社
電話本局②九七三番
振替京城一六六六八番

南大門通五丁目一番地(日華ビル內)
中央自動車株式會社
取締役社長 荒木武二郎
專務取締役 原口幸吉

沈禎澤

京城府寬勳町一四二(安國洞四街里)
北星堂書店
電光③二五二八番
振替京城二二四〇〇番

京城府齋洞町
書籍文具 卸小賣
東光堂書店
電光③三七〇番
振替京城一六一二一番

京城府貫鐵町二一七番地
プロセス オフセット印刷
寶晉齋
電光③五七〇番

營業種目
ナショナル乾電池
ナショナルランプ
ナショナル受信機
電氣器具
各種在庫豊富
卸問屋
松下電器代理店
東一電氣商會
京城府仁寺町五一番地
電光③一六八六番
振替京城二六五〇三番

京城府鍾路二丁目三三番地
絹織物直輸入賣買
高級綢緞
株式會社 信用商店
電光③一三七番
地方販賣部設置・地方注文歡迎

朝鮮內外映畫配給業組合

京城授恩町
團成社

新富座
桃花劇場

京城府光化門通一四七番地
高麗ホテル
高弼權
電光③二二五七番

‖咸尙勳‖

長期抵抗策과 列强의引入策

北平과·天津을 잃고 上海와南京을 버린 國民政府는 首都를 重慶으로 옮기더라도 事實上 眞激狀態에 잇다。그러나 蔣介石政府는 大本營을 南昌으로 옮기고 廣東과 西北國境을 通하야 依然히 武器를 輸入하야 第二段、三段의 長期抵抗을 計劃할뿐아니라 英米佛蘇等 列强을 事變의 渦中에 끌어너허 以夷制夷의 政策을 쓰라한다。아니 支那는 [illegible] 上海、南京의 陷落 [illegible] 湖南、江西、福建、廣東、四川等의 諸省은 그대로 維持되어 잇을뿐아니라 多年의 國內戰의 經驗에 依하야 若干의 戰鬪力을 [illegible] 援助하고 軍隊、自動車를 交戰區域에 [illegible] 國際問題를 이르키라한다。上海中立地帶案의 提出、[illegible] 英大使事件 [illegible] 事件等은 모두 이支那의列强引入策에 好機會를 주지 안핫는가。

汪餘曲折을豫想하는支那事變의前途

이와가티 支那事變은 偶發事件으로 因하야 擴大되고 南京政府에 對抗하야 新政權이 出現하리만큼 事態를 現出하얏거니와 엔 想像치도 못한 事態를 現出하얏거니와 대체 이 支那事變은 어떠케 歸結될까。帝國政府는 南京이 陷落된以上 國民政府는 一地方政權이 되엿스므로 承認을取消하고 新生한 親日親滿의 中華民國臨時政府와 友好關係를 맺을大方針을 樹立하고 反抗을繼續하는 蔣介石軍에 對해서는 最後까지 追擊하기로 決定하얏다。그러므로 蔣介石이 屈服치안는限 武力行動은 中止치 안흘것이오 英米佛蘇等 列强이 如何한 態度를 取하드래도 이 不動의 方針은 變更을 許치 안키로 되엿다。그러느니만치 帝國의 前途에는 相當한 汪餘曲折을 豫想할지니 長期戰에 備할 精神的、物質的 覺悟가 必要하며 列强의 外交政策을 機敏히 採取하야 이에 對應할 政策도 講究斷行되지아니치 못할것이다。

蘇支不可侵條約

日支 兩軍의 衝突事件이 全面的武力抗爭으로 發展되매따라 가장世人의 注目을着起하든問題는 支那事變에對한列國의 動向이엿다。北支事變이 支那事變으로 擴大되고 北支 中支에서 激烈한軍事行動이 버러지게된 八月二十九日 南京政府와 莫斯科政府는 同時에 蘇支不可侵條約을 締結하엿다는旨의 聲明을 發表하야 世人의 耳目을 聳然케하엿다。

今回에 成立된 蘇支不可侵條約은 前文及五個條의 本文으로成立되엿는데 其重要한點은 아래와갓다。

卽同條約은 第一條에서 不戰條約의 精神을 嚴肅히確認하는義務의結果로『兩國은相互相對國에 對하야 單獨又는 一個或은 數個의 第三國과 共同하야 攻擊하지안흘것』을 約束하엿다 다음에 兩締約國의 一方이 第三國으로부터 攻擊을 바들境遇에는 他方은 直接間接으로 侵略國에對하야 아모런 援助도與치안키를 約定하엿고 또該侵略國이 被侵略國에對하야 不利하게 利用될 可能性이잇는 何等의行動又는 協定을 行하지안키를 規定하엿다 그리고 第三條에잇서 本條約의 規定은 締結에依하야 現在兩締約國間에 存在한 條約及多國間의 條約에서 發生하는 兩締約國의 權利義務에 何等影響을 與하지안는다는것을 承認하고그리고 最終에 有効期間을 定한것이다 本條約의 內容을 槪觀하면 그 機構는 從來 蘇聯邦이 多數의 國家와 締結한 不可侵條約과 大同小異하다 이와가티蘇支不可侵條約은其內容이 何等 奇異할바가업고 一見重要하지안흔것가티 도보히다 本條約公表同時에 國民政府가 發表한 聲明에 『本條約의條項은 極히 消極的이고 簡單하야 單純히 不可侵의 相互保障及 侵略國에對한 不援助에 依하야 平和를 維持하려함에 不外한다』고한 言明이 그럴듯한것갓기도하다 그것은蘇支兩國에 何等 戰爭을 惹起할 事態가 存在하여잇는것도아니요 支那는 交戰國이니까 勿論 日蘇兩國의 關係를 볼지라도 蘇聯이 日本의 軍事行動을 支援할念慮가 秋毫도 업기때문이다

그러나 日支事態에 鑑하야 本條約이가진 意義는 자못 重大하다 武漢政府分裂以來 十年間 全國力을 擧하야討共을 遂行하여왓고 蘇聯과의 接近을 忌避하여온 國民政府가 突然 態度를 急角度로 轉換하야 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聯蘇政策을 採擇하게된것이 本條約에 包含된 最大의 意義이다 本條約 自體만으로는 直接으로는 戰局에 影響을 미치지못하엿스며 또 아모런 效果도 못할것이다 그러나 그裏面에 某種의 秘密協定이 存在하리라는것은 世上이 거이 一致하게 認定하는바이다 그秘密協定은 勿論確認할수업스나 支那事變發生後 今日까지 蘇聯이 取하여온 行動으로보아 武器供給에關한密約이 잇는것만은 事實인듯하다 通信은 거이날마다 蘇聯의 飛機供給、軍事顧問飛行士派遣等의 뉴스를 傳한다

出發直前

그러나 事變勃發後五個月이 지나지못하야 北支、中支戰線의 全面的崩壞 北支那軍의 物質的精神的打擊은 極히深刻하고 特히 交軍은 再起不可能하리만치 潰滅된 現在에잇서 多少武器供給과 技術員의 派遣이잇다고해도 그것은 問題가되지안는다。設使잇다고 하드라도 蘇聯의東部國境과 外蒙古沙漠과 가티 交通이 未開하고 人煙이 稀薄한 僻地 道路를 通하야 果然 얼마나 運輸할것이며 도이것이 軍事上 얼마나한 도움이될지는 推測하고도 나믐이 잇다。(R生記)

커트說明 青島를 中心으로한 山東省一帶는 日本의 特殊權益地帶다 中에도 青島의 紡績事業은 그擴張가 擴大하야內外紡 富士紡等 九個의 紡績工場이잇고 職工數二萬五千 [illegible] 島의 [illegible] 에 達하야 [illegible] 이 支那에 日支事變이 勃發되자 戰火가 여게 波及할까 念慮하고 帝國은 山東一帶의 邦人全部를 撤退시키는 同時에 省主席韓復榘及青島市長 沈鴻烈에게 對하야 企業保護를 要請하엿다 去十八、九兩日에 亘하야 支那側은 遺留財産을 破壞、燒却한結果 그損害가 二億餘圓에 達하엿다。이에 憤慨한 軍當局은 斷乎膺懲을 決意하고 去二十七日 當城을 陷落하엿다。

首都南京陷落後 戰線은一層擴大

長期抗爭의前途如何

南京陷落에 際하야서 世人의 注目은 蔣介石의 聲明과가티『首都死守를 貫徹할것이냐?』그러치안흐면『日本과의 和를 講하야 首都를 戰火로부터 救할것이냐?』의 二點에 集注되여섯다。蔣介石은 마침내 一般의豫想에 反하야 前者도 取치안코 後者도 選擇치안헛다。卽 그는 南京城內에잇든 主力을 落城에 數日앞서 津浦線으로옴기고 蔣自身도 南京을 脫出하야 南昌으로 赴하엿다 首都에는 防禦에 必要한 兵力만을 남겨 抗戰케하엿든것이다。그러면 前後十年間 統一工作을 完成하야國都로서의 面貌를 가추고 精神的으로 國民崇仰의『메카』로되여온 南京陷落은 蔣介石政權에 對하야 如何한 影響을미칠것이냐? 그리고 首都를일흔支那는 어데로가느냐?가 吾人의 關心事이다。

南京陷落 卽後 十五日同盟通信은 우리에게 이러한 報道를 傳하엿다。卽『南京攻防戰에서 一敗하야[illegible]가된 敵大部隊는 血路를 여러 東方津浦線과 揚子江의 水陸兩路로 나누어 安徽省蚌埠와 省城安慶으로 續續集結하는中이다 敵은 此等敗兵을 收容하는同時에 安慶을 中心으로 安徽、江西、浙江을 兩翼으로하는 山岳地帶를 背景으로 一大防禦陣地를 構築하고 이를 第二의 防禦線으로하야 아직도 一戰을 交하려하는 氣勢를 보이고잇다 一方水路로부터 我軍의 進擊을 阻止하기爲하야 安慶附近으로부터 [illegible]江江岸에 數線의 封鎖線을 設置하고 安徽 江西兩省에서는 八十七、八十八、三十六各師의 中央直系軍을 基幹으로 新兵을 募集하야 補充訓練을 實施하고 軍再建에 全力을 傾注하야 抵抗力의 增强을 企圖하는一方 大本營을 南昌에 옴기고 張群 熊式輝 陳誠 張治中 楊杰等 蔣介石의 軍事首腦部도 對日抗戰의 新作戰을 講究하는 模樣이다 日支紛爭은 [illegible]

英米蘇以外에 佛蘭西가잇스나 佛國은 歐洲에잇서 獨逸에對한 恐怖가 잇고 더욱이 最近에는『스페인』問題로 골치를알코잇슬뿐 아니라國內의政治上經濟上事情도 緊迫된 狀態이므로 到底히 自進하야 極東問題에 干與할 餘暇가업다。그러나 여게서 注意할點은 佛蘭西는 極히 危險한境地에잇스므로 如何한 境遇를勿論하고 國際情勢上 英國에 依存하게되는 點이 만타。따라서 佛國은 恒常 英國의 一動一靜에 비위를 마추고 잇스니만치 極東問題에 關하야서도 本意는아니면서도 英國에 追隨할可能性이 豊富하다 他面에잇서 佛蘭西는 또한 對獨關係上 蘇聯邦과 同盟關係에잇스므로 事態가惡化하야 日獨兩國이 行動을가티하는境遇에는 對蘇關係上 帝國에 對하야 對立行動에 나올危險이 不少하다。

英國

이번事變에잇서서 反日策動의 [illegible] 熱中한다。國際聯盟의 決議라든가 九國會議의·威脅等은 모두 英國의 策略的 表現이다。事實 英國의 心情으로말하면 武力干涉까지라도 斷行하여보고 십것지마는 今日의 歐洲情勢는 英國으로하여금 冒險을 許諾지 안는다。伯林羅馬樞軸은 虎視眈眈하야 歐洲의 現狀破壞機會를 엿보고잇고『스페인』問題를 圍繞한 歐洲의 合縱連衡은 英國에對하야 自重的 警告를 發하고 잇다。또 軍事上으로 보드래도 英國現在의 海軍力으로遠隔한極東에서 武力的行動에 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되지안는다。그러나 英國은 單獨行動만을 躊躇하느니만치 米國이나佛蘇等과 提携만된다면 積極行動에까지 나올는지모른다。그리고 英은方今이것을꾀하고잇는中이다

米國

米國도亦是 日本의 支那大陸發展에 好感을갓지안는點에서는 英國이나 다른것이업다。支那의 門戸開放、機會均等主義 維持는 [illegible]

不拘하고 對立的尖銳關係에잇스므로 日支間에 交戰狀態가 생겨난今日 蘇聯이 支那側에 加擔할것은 누구나 想像할수잇는일이다。最近의 蘇聯國內事情은 極東方面에의 積極的進出을 不許한다。政治方面뿐아니라 軍隊方面에도 內紛軋轢이 생겨나서 軍事能力도多少低下된 모양이다。그러므로『蘇聯은 今日까지 行動을 躊躇하고 日本의 軍事行動이 南下한것을 기뻐한다』고 佛紙『에코·드·파리』는 報道하엿다。事變勃發後에 締結된 蘇支不可侵條約도 發表된바로는極히消極的이고 紙上에 報道되는 蘇聯의 對支軍事援助도 事實은 誇張讃辭가 만흔모양이다。結論的으로말하면 蘇聯의事變에 對한態度는 國內情勢도 相當히 多難하고 西方으로부터의 牽制도잇스므로 目下積極的 活動에는 나올수업는事情에잇스나 支那의 對日長期抗戰은 可能한方法으로 援助支持하야 此로因한 日本國力의消耗를 꾀하는 모양이므로 警戒가必要하다。(月城生)

上右로부터 近衛首相·杉山陸相·寺內北支派遣軍最高指揮官·松井中支派遣軍最高指揮官 下左로부터 蔣介石·何應欽·張群·白崇禧·馮玉祥

表示하는 同時에 全聯盟國을 招集하야 支那에 對한 單獨的援助를 考慮할것을 決議하엿다。그리고 第一의 決議에 對하야 卽時 實行에 着手하야 白耳義政府를 招請國으로 定하고 九國條約調印國을 包含한 聯盟加盟國十七國、卽 英國、加奈陀、濠洲、南阿聯邦、뉴질란드、印度、佛國、伊太利、白耳義、和蘭、葡萄牙、支那、볼리비아、丁抹、瑞西、諾威、瑞典과 米國蘇聯 兩國을 加하야 合十九國에 向하여 十月三十日 부룻셀에서 九國會議를開催한다는 招請狀을 發하게 되엿다。開會의 趣旨는 이미 議決案에도 表示된바와 가티 九國條約 第七條에 依하야 東亞의 事態를 檢討하고 또 該地域에서 이러난 遺憾된 紛爭의 終結을 促進하려고 友好的 手段을 講究키爲함이라는것이엿다。이招請狀은 帝國에는 十月二十一日에 비로소 駐日白耳義大使의 손으로傳達되엿다。

我政府는 그後 이에對한 態度를 決定하기 爲하야 十月二十七日에 臨時閣議를 열고 外務、陸、海三省間의 協議에서된 回答文과 또回答文發送과 同時에 中外에 發表할 聲明文兩案을 討議한結果 九國會議의 招請을 拒絕하기로 決定하고 大要 左와가튼 回答文을 同日夕刻에 駐日白耳義大使에게 手交하고 또 外務省으로부터 駐白大使에게 打電하엿다。卽、當事國 一方의 行動을 條約違反이라 斷定하는 會議에서는 到底히 日支間의 事態를 公正妥當하게 解決할수업고 더욱 今番의 支那事變은 東亞의特殊事態에 基因하는것이므로 日支兩國의 生存에重大關係를 가지는것이므로 東亞에 잇서서利害關係가 不同한 或은 利害關係가 殆無한 諸國의 [illegible] 採擇하엿는데 [illegible] 今次의 帝國의 行動은 不得已한 自衛行動이기때문에 九國條約의 適用範圍外이라는것과 日支問題는 오직日支兩當事國에서 處理함이 可하다는것을 强調하엿다。日本의 [illegible]

各各 一國의 平和論을 主張하고 特히 伊代表는 率直하게 日本을 支持하야 日支問題解決은 日支直接交涉以外에는다른길이 업다고 强調하고, 支那代表는 如前히 日本攻擊論을 繼續하엿다。三日以來 繼續하야 日支和協策을 講究하든 九國會議는 六日의 全體會議에서 日本에 對하야 再招請狀을 發하기로決議하고 十一月七日附로 帝國政府에 그招請狀을 傳達하엿다。그러나 我政府에서는 十一月十二日에 既定方針대로 參加拒絕文을 再發하엿다 [illegible] 會議는 開會以來 三週間으로써 마치내 [illegible] 를 宣言하고 [illegible] 다지게되엿는데 이 聲明書에 잇서서도 何等의 具體的 解決方針을 表明한것이업고 다못 前에發表한 聲明書의 趣旨를 反復함에 不過하엿다。卽 첫재、武力으로는 日支兩國間의 紛爭을 解決할수업다는것과 둘재 日支紛爭解決에는 兩國과 重大關係가잇는 第三國의 協力이 必要하다는것等이엿다。이리하야 日支和協策을 講究할 目的으로 召集되엿든 九國會議도 何等의 具體的 實行方 [illegible] 日本의 參加拒否로 因하야 致命傷을 바닷슨것이나 會議進行中에 잇서서特히 英、米兩國이 自進하야 會議를『리드』할 何等의 意向과 誠意를 보이지안키때문에 九國會議는 結局 失敗에 도라가고 日支兩國의 問題는 如前히 未解決로 남아잇게되엿다。(K記者)

十一月六日
上海 十一月十二日
南京 十二月十三日
濟南 十二月廿七日

[illegible]

防共親日標榜下 北支新政權出現

海關接收等基礎强化

去十二月十三日의 國民政府首都南京陷落을 契機로 翌十四日에 防共、親日、滿을 標榜하는 中華民國臨時政府가 北京居仁堂에서 成立되엿다 그리고 新政府는 卽時 施政의 第一步에着手하야 十五日에는 行政委員長 王克敏에 依하야 天津、秦皇島 그他華北의 海關接收를 斷行하고 또諸外國과 修好 通商關係의 締結을 企圖하는一方 日本과의間에는 特히 그親善關係에 拍車를 加하야 經濟合作運動이 急速으로 進展되고잇서 近近中 日經濟協會가 設置되리라고 觀測된다。

回顧컨대 北支에 잇서서의 新政權 樹立運動은 그氣運이 已往부터 濃厚하든것으로 벌서昭和十年十二月二十五日에 殷汝耕等一派가 河北省 東部二十二縣을 一團으로 冀東自治政府를 組織한일이잇섯는데 昨年에 드러가서는 北支各地에 더욱그運動이 盛行하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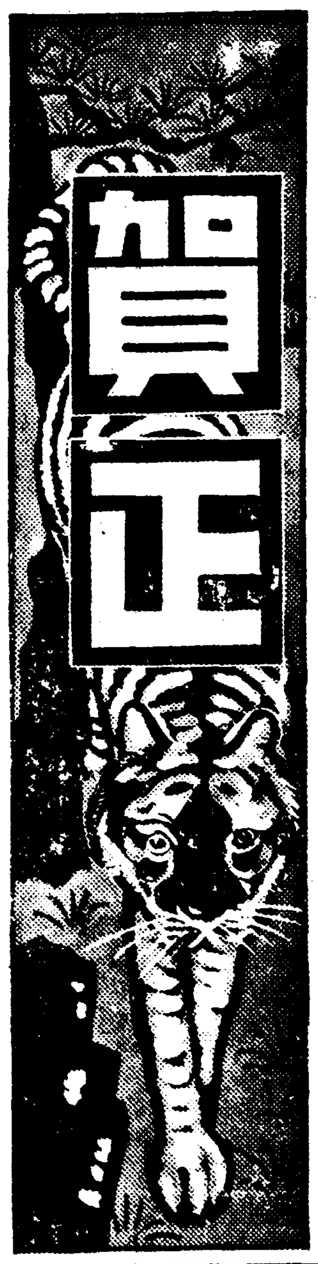
卽 今番事件에 關聯한 日支衝突의砲煙이 아직 北平、天津에 스러지기前에 벌서 北平에는 江朝宗을 委員長으로한 北平治安維持會가 組織되고 天津에는 高凌霨을 委員長으로한 天津治安維持會가 成立되고 十一月二十二日에는 蒙疆聯合自治政府가 組織되고 同二十七日에는 河南省治安維持會가 彰德에 또十二月一日에는 山西省聯合自治政府가 太原에서 各各 樹立을보게되엿다。此等 新政權은 모두 反共、反國民黨을 宣明하고 親日的 主義를 標榜하여온바 今番의 中華民國臨時政府의 成立을 當하야 或은 解消를 自願하고 或은 合流를 聲明하엿다 勿論北支新政權 樹立運動에 對하야 只今까지에 最大의 支障을 준것은 抗日方針을 國策으로하는 南京政府와 國民黨이오 그具體的 抗日戰力인 中央軍과 地方軍閥等이엿다。그러므로 南京陷落과 同時에 蔣政權이 一地方政權으로 轉落하게된 今日에 [illegible]

元來 北支는 政治上 軍事上 日本과 重大한 關係를 가젓다。滿洲國의 成立에 依하야 日支兩國勢力接觸의 中心은 北支로 移動하엿다 特히 河北 察哈爾兩省은 滿洲國과 直接으로 境界를 接하고 잇서 [illegible] 重要한 意味를 가지게되엿다。또 蘇聯은 [illegible] 支那의 社會的 [illegible] 基礎上에 서서 雄大한 計劃을 고이섯고 昨年 八月廿一日에와서는 蘇支不可侵條約까지 締結하게되엿다。그러므로 日本은 軍事上에서 北支를 大陸作戰準備의 根據地로하야 蘇聯 外蒙古 및支那의 赤化勢力의 進出을 防遏할 必要에 切迫되여잇다。다음 經濟上으로 보아北支의 對日關係는 輸入이 三六乃至 四六퍼센트 輸出이 一五乃至 三〇퍼센트에 達하고잇스니만큼 그 豐富한 棉花、鐵、石炭等資源의 開發과 商品販賣市場으로서의 北支一億萬住民의 趨向如何는 日本의 盛衰에 至大한 關係를 가지고잇다。

그럼으로 中華民國臨時政府는 去十二月十四日에 近衛首相이 聲明한바와 가티 日本의 絶對한 援助와 協力을 밧는同時에 北支에 잇서서『디 퍽토』의 政權을 掌握하고 蔣介石의 國民政府에 對하야 積極的對抗을 하게될것이다 去十二月二十日의 漢口電에 依하면 國民政府는『北京政府뿐아니라 日本의 軍事占領地區에 잇는 如何한 組織이라도 이를 承認할수업다』하나 이에 對하야 新政權은 日本軍에依한 蔣政權의 徹底的膺懲을 [illegible] 하고잇는터이므로 新政權對國民政府의 反目衝突이 今後激烈化할것으로보인다(K生)

江陰砲臺를占據한皇軍

[illegible] 量 내지못할것이다 蘇聯도 亦是 內部의政情不安과 新憲法實施로 모처럼 名目上으로나마民主主義的 [illegible] 를 實施하려하는 [illegible] 에 全國民의 피와땀으로 建設한 新國家의運命을 賭하서까지 戰端을開할 勇氣를가지지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中國으로서 이以上더 抗戰을繼續한다는것은 全國을焦土化하는것이며 人民을 死의 [illegible] 으로 모라너는自滅策밖에 되지못할것이다 (靑山生)



京城竹添町
東洋劇場
電光③ 三一五四番(劇場現場用) 三六四〇番(事務所用)
直營 裵龜子樂劇團 青春座 劇團豪華船

鮮滿警察學會

京城府仁寺町一三三
家具元祖 紋昌商店
電光一六八八番 振替京城六一三三三番

京城府鐘路一丁目七七番地
漢陽タクシー株式會社
電光③二〇〇〇番 二〇〇一番 舍宅 三六七三番

京城公平町九九
ユニオンミシン日本全國總販賣元
三福合名會社
電話光化門③一六四八番

京城府西大門町一ノ一二六
活版石版 和洋帳簿 製本一式
東亞社印刷所
電話光化門③三三三一番

京城府黃金町七丁目四番地
東亞手袋工場
主 李鎬胤
電本局② 五九五七番 振替京城一四五七一番

安田衣會
電話光化門③一五三番 振替京城一四八二九番

合資會社京城ゴム工業所
世界護謨工業合資會社
株式會社ソウル護謨工社
中央商工株式會社
合資會社朝鮮ゴム工業所
大陸ゴム工業株式會社

市內於東町一六八
和生堂齒科醫院
齒科醫師 鄭乙庚

旭金庫工業株式會社京城支店
金允煥
電話(2)三三一七番

專賣特許『醬油調節』裝置村『肥料の素』鮮滿總發賣元
三陽商會
京城府蓬萊町二丁目五

京城府鐘路二丁目二一番地
藥種問屋 普仁堂藥房本舖
電光③一二一六番 振替京城五一六一番

京城鐘路(和信裏)
カフエー白馬
電話光化門③ 一六〇七番 三三一九番

京城府武橋町九二番地
株式會社漢城分番
電話本局② 三五五五番 四五六五番 五二八四番

丸東旅館
主 孫 [illegible] 日
電話光化門④六九九番

この新春(はる)も
明るい笑顔で・若肌で!
삼가 光輝잇는皇國의
新春을祝福하옵니다
全女性 여러분★
한층 더 어여쁘지시라…고
冀望하는 저의들의 念願이
今年도 레ー도化粧料
의愛用으로 당신에게서
成就되도록 祈願합니다
レート化粧料本舖
株式會社・平尾賛平商店
三大効果
● 살거칠防止에
● 化粧下에
● 면도하신뒤에
CREME LAIT
レートクレーム
アレ止めに最高の品質
レートクレーム

朝鮮日報

新年號 其三

時局産業樞軸으로 朝鮮經濟도急旋廻

朝鮮經濟는 事變前에잇서서는 國防一線에沿하야 朝鮮資源開發을中心으로 動하얏고 事變後는 戰時體制로 急激變遷되엇어 强力한統制下에 推移되엇다.
內地서는 軍需景氣를 謳歌하얏스나 朝鮮은 軍需工業이업는때문에 物價高의影響만밧다가 事變後는 戰時經濟立法이 그대로 朝鮮에도 實施되엇스며 一層國策達成에 邁進케되어 統制機構의 確立과 運用의 完全을 期하고 産業擴充特히重工業의 發展計劃은 着着 實現되는中이다.
이리하야 朝鮮의 産業經濟는 時局産業을 樞軸으로 工業發展의 一大展開過程에잇는바 이제 戰時下의朝鮮財政經濟의一班을 들어보면 大體 如左하다.

農漁山村

먼저農業方面에잇서서는 朝鮮經濟의基調가되는 米作은 第二回收穫豫想이 二千六百三十四萬石이란 未曾有의大豊作으로서比前年實收三割五分七厘 增收일뿐아니라 一時急迫되던 米穀資金問題도 鮮銀의積極貸出方針으로大體로잘融通되어가며 비록輸送이圓滑치못하나 이것은移出殺到를防止하는 作用이되어 米價의大體高價維持와아울러 農村經濟는 潤澤타아니할수업고 粟一割六分、大豆一割七分의各增收이며 蠶繭도 春夏秋蠶通하야 比前年無大差일뿐아니라 國策的重要作物인棉花도 前年보다一億斤以上의增收인 約二億四千萬斤에達하얏는데 비록 米棉暴落影響으로市勢가低落되엇다하나 이것은收穫增으로『카-버』할수잇고 더구나待望이던 棉花栽培損失補償施設實現은 農家經濟에잇서 不安을除去케한것이다

이外에田作改良 畜産獎勵는注目되는일이며 肥料에 잇서서는需給圓滑 價格公正을 期키爲하야 朝鮮重要肥料業統制令이 制定되고 支那事變으로 因한 價格暴騰 配給不圓滑에 備키爲하야서는 朝鮮臨時肥料配給統制令이 公布되엇다。

土地改良事業은 當分消極的範圍를 버서나지못하나 水利不完全畓의 小規模改良事業 耕地不足을 緩和할 小規模干拓事業을實施하얏다。

林政上의 懸案인 民有火田의整理를 進하고 砂防事業擴充 國有林造林擴充 朝鮮林業開發會社設立等 實施에 着手하얏다。

北朝鮮開拓은 十五個年計畫의第六年次事業實行中인바鐵道、道路等이 進展되엇다

水産界를보면 東海岸의 鰮漁는 未曾有의 大豊漁이오 其他魚種도 增獲이며、水産品製造高도 늘어서 十一年의水産總額一億六千萬圓以上이엇다 飛行機에依한 魚群探見等은 자미잇는試驗이엇는데 魚油價低落으로 漁村에 一抹의 不安이 不無하며不合理한魚油不定量 入札制度가든것은 廢止論이 擡頭되어잇다 社團法人朝鮮漁業組合中央會의設立、朝鮮協同油脂株式會社設立은水産團體의 統制强化로 볼것이다。

鑛工業界

먼저鑛業界는 十二年 새로이着手한 鑛山數가 一千以上에達하는데 施設機械化 操業合理化資本의融合으로 發展되고잇는데 그反面 中小鑛業家의不滿不平이적지아니 十二年의 總鑛産額은一億數千萬圓 豫想이오 産金은九千萬圓을 豫想코잇는데 産金에對하야서는 別題로 詳述함으로 이에는略한다

工業界는 近年各種資源開發의 國策下에 製鐵、金精鍊、人造肥料、硬化油、石炭液化等 新興工業을비롯하야 紡績、세멘트、石油、麥酒、製粉、製紙等 國內需要品의 製造工業과 琺瑯鐵器、電球、硬質陶器、染織、水産肥料等 海外輸出品의 製造工業이 勃興되어 十二年의 工産額은 十一年의 七億三千萬圓보다 一段躍進되엇슬것이며 特히時局影響으로重工業勃興에伴한 鐵鋼의國內需要가 急激增大되어 鐵飢饉을부르짓는이때이라 咸北茂山鐵山開發에對하야 三菱으로하야곰 計畫을促進케하는同時 日本製鐵會社로하야곰 淸津에製鍊所를建設토록하야 具體的으로 進捗中이다 石炭界는 人造石油工業、火力發電事業勃發로 劃期的發展中이오 無煙炭內地進出等으로 活況이다 特殊鋼도開發되어 軍需資料로서 提供되고잇다。 이에 特記할것은 鴨綠江、虛川江等의 大發電計劃으로 이것은 大規模工業의 出現을 豫想케하는것이다。

物價勞賃

世界物價高와 軍需品의暴騰으로 物價高大勢에伴하야 朝鮮도 高物價의影響이 深刻하얏스니 殖産局商工課調査 全朝鮮卸賣物價指數는 (昭和七年十一月부터 三個月平均基準)

	十月	十一月
食料品	一二四	一二六
衣類品	一〇九	一〇八
燃料	一三五	一三七
建築材料	一四九	一五二
雜品	一四五	一六〇
總平均	一二九	一三二

이것을前年同期에比하면 食料品七 衣類品一〇 燃料一四 建築材料三八 雜品四九 總平均一七의各昂騰이엇다

어제朝鮮銀行調査 京城卸賣物價指數를보면 四月이天井이고十一月에는再急騰이엇다

◇十二年京城物價指數

一月	二三四·七	七月	二三四·三
二月	二三四·八	八月	二三五·五
三月	二三七·四	九月	二三四·七
四月	二三九·七	十月	二三四·三
五月	二三四·九	十一月	二三八·六
六月	二三四·八		

勞賃도物價騰貴에 伴하야 昂高되엇스니 總督府調査에 依한九個府(京城、大田、木浦、大邱、釜山、平壤、新義州、元山、淸津)의勞賃은 內地人調査種目三十中比前月騰貴十八、低下四、不變八이오、朝鮮人調査種目卅一中騰貴廿、低下二、不變七이엇다

貿易躍進

朝鮮은 地理的關係上 大陸發展의 基地로서 重要性을加하야 滿洲、北支에對한 有無相通의貿易關係는 期待가크다인데 財務局調査에依한 今年十一月까지의朝鮮貿易額은 十三億八千百十四萬六千百八十一圓에 達하야 前年同期의 十二億二千百四十一萬五千五百六十二圓을 凌駕하고 또 이미今日까지의 最高記錄인 昭和十一年中의 十三億五千五百萬圓을 突破하야 今年十二月을加한 貿易額은 十五億圓에達할모양이다 未曾有의 大記錄이 豫想되는데 이것은 滿洲事變當時의 昭和六年에比하야 約三倍、同八年에比하야 二倍의躍進을示하는 것이다 十一月까지의 主要各港別貿易額은 如左하다(單位圓)

釜山	三五七、七六五、一七八
仁川	二五六、四〇五、六七〇
鎭南浦	一五九、九六七、六二八
淸津	八〇、二八七、三四三
新義州	七一、一〇六、八八九
群山	六五、一一一、〇九二
元山	五一、七九四、六七一

金融事情

金融界는 起債市場閉鎖에 依하야 東拓、殖銀의 債券發行이 不能에 陷하자 長期資金이 枯渴되고 이로因하야 不動産金融이 막혀져서 全面的으로中小商工業界까지 波及되엇다가 事變勃發以後 臨時資金調整으로一層緊張感이 잇섯고 特히米資金이 대단히 逼迫되엇스나 鮮銀의 積極貸出로 相當히 活潑해젓스며 年末金融도 平穩하얏다 그리하고 鮮銀券發行高는 保證準備擴張이엇섯스나 限外까지發行하면서 三億圓臺를 肉迫하얏스며 鮮銀의 本支店을 通한朝鮮內貸出도 三億圓가량이다

〔京城手形交換所調査〕十月末現在全朝鮮金融機關의 預金貸出調査는

◀預金總額이 七億五百十九萬四千圓

◀貸出總額은 十三億二千五百四十九萬四千圓

인바 各機關別로보면 預金에 잇서서는 二億一千六百萬圓으로 殖銀이 總額의三割을占하야 首位이며 貯銀과金組가 各一億五千萬圓臺로 伯仲之間이다

貸出에잇서서는 特銀이 七億圓으로서 總額의半以上이며 그다음은 金組의二億四千九百萬圓 貯銀 一億八千九百萬圓으로 金組의勢力이 貯銀보다크다

이제全朝鮮의 手形交換高를보면 十一月까지의 交換高가 枚數二百七十萬五千六百二十一枚 金額十七億二千五十七萬六千圓이다 이것을前年同期에比하면 枚數는 二萬九千九百四枚의 減少이다 金額은 一億四千六百六十六萬八千圓의 增加이엇다 一月以降交換高月別은 如左하다(單位千圓)

	枚數	金額
一月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中小商界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小商工業界는 年初物價暴騰으로 意外巨利를 본바도 別로업고 需要가不振의 惡影響을바닷스며 金融梗塞으로 不渡手形續出이엇다 그러다가 事變發生以後 一般의 警戒人氣가 緊張하얏고 資金調整의 影響을 밧지안엇스며 [illegible] 平年도 中小商工金融이 [illegible] 非常時에는 一層緊急한 救濟策이 要求되어잇다

米價打診

戰事이잇는해에는 반드시 大豐作이 들었다는 過去의經驗은 昨年에도 適中하야 內地가비록 平年作以上의 豐作이오 朝鮮은 二千六百萬石臺라는 未曾有의大豐作을 告하게되었는데 農作은 勿論조흔일이나 農産物價格이란 元來 彈力性이 不定한것이므로 或은 供給의過剩、資金流通의不圓滑로 出廻期를마저 換金資金飢饉이되지안흘가하는 杞憂조차 업지안엇섯다。그러나 그것은杞憂에끄치고 米穀資金의 意外의圓滑、政策期待、農家의訓練된自制、物價高의支援等으로 해서 지난九月初까지 豐作豫想으로 崩落된米價도 反騰步調로轉하야 十二月 公定米價發表前에는 各地淸算은 出廻期에 보기드믄 高價로 阪地는 三十五圓臺를 示現하고 仁川이 三十二圓臺를突破하는 好勢를 보이다가

政府

公定價格決定이 米價抑壓態度로 轉換하는것을 多少 失望하야 反落步調裡에 越年되엇는데 이모든 것이 戰時下의 米穀事情을 如實히 보여주고잇다。

도라다보건대昭和十一年米收穫은內地豐作에不拘코 朝鮮의 凶年으로 需給이 그리圓滑치안흘것이 豫想되고 또年末年初에 巨한物價의 急激한 騰勢에 追隨하야 出廻가 騰貴되여 三月在米減少로 一大嫌騰을보이고 四月에들어 最高價接近과하게 反落된後 [illegible]으로 戾賣狀이되어 天井米價로보엿을때에 突然 支那事變이 發生하야 思惑買出盛으로 다시一大爆騰을 [illegible] 것이價位의最高米價接近、政府의 思惑取締 今年度形의 大豐豫想等으로 다시 一轉反落하야落潮를 보엿다가 前記와가티 出廻反高로 波瀾重疊狀을 보이게되것인데 [illegible] 策의힘이 如何히 偉大한가하는것이다。勿論去年七月의 一大暴落도戰時가아니면 볼수업는일이오 今年가든

豐年

에出廻期高를 보인것도 戰時아니면 볼수업는 일이나 政府의 政策으로 左右되는 統制經濟時代가 아니엿드면 지난 七八月에는 어떤 米騷動이 또 낫슬는지도 몰랏슬것이오、또 如何히戰時的 思惑買가 旺盛하드라도政府의 買上實施、米穀臨時措置法施用에 伴하는 米穀政策의多少의 變更이업섯드라면 實物壓迫에 出廻期高는 또한 示現치못하엿슬것으로 생각된다。即米價高의 抑制도 政策의 한이며 暴騰防止도 또한 政策의한이다。이러한關係로 戰時임에도不拘코 昔日과가티 任意放任이 不許되나 米價의 吊上、引落은 統制가 不許하는바되여 自然 思惑의範圍는 一定한 限度로 制限되엇기때문에 自由經濟時代에서보는 思勢도 업서거니와 그代身 素潮도 또한 急하지안흘것이다。

今回 政府가 新米穀年度의公定米價를 決定함에 當하야 物價參酌率로는 四十圓을 突破하는 것을 家計米價一本建으로 最高實上二圓十錢上、最低三圓을

引上

한데끄칠것은 消費者側의 警戒를 爲한 米價抑壓策으로보여 事變時局에 依한 消費增大에不拘코 今後大幅引上의 餘地는 업서 [illegible] 明瞭한 高價의 下値一割以下가 되여잇서서 下値는 거의 阻止되어잇는터이므로 一般物價高와 消費增大와함께 米價는高價를 거의 平均的으로 維持할수잇슬것으로 豫想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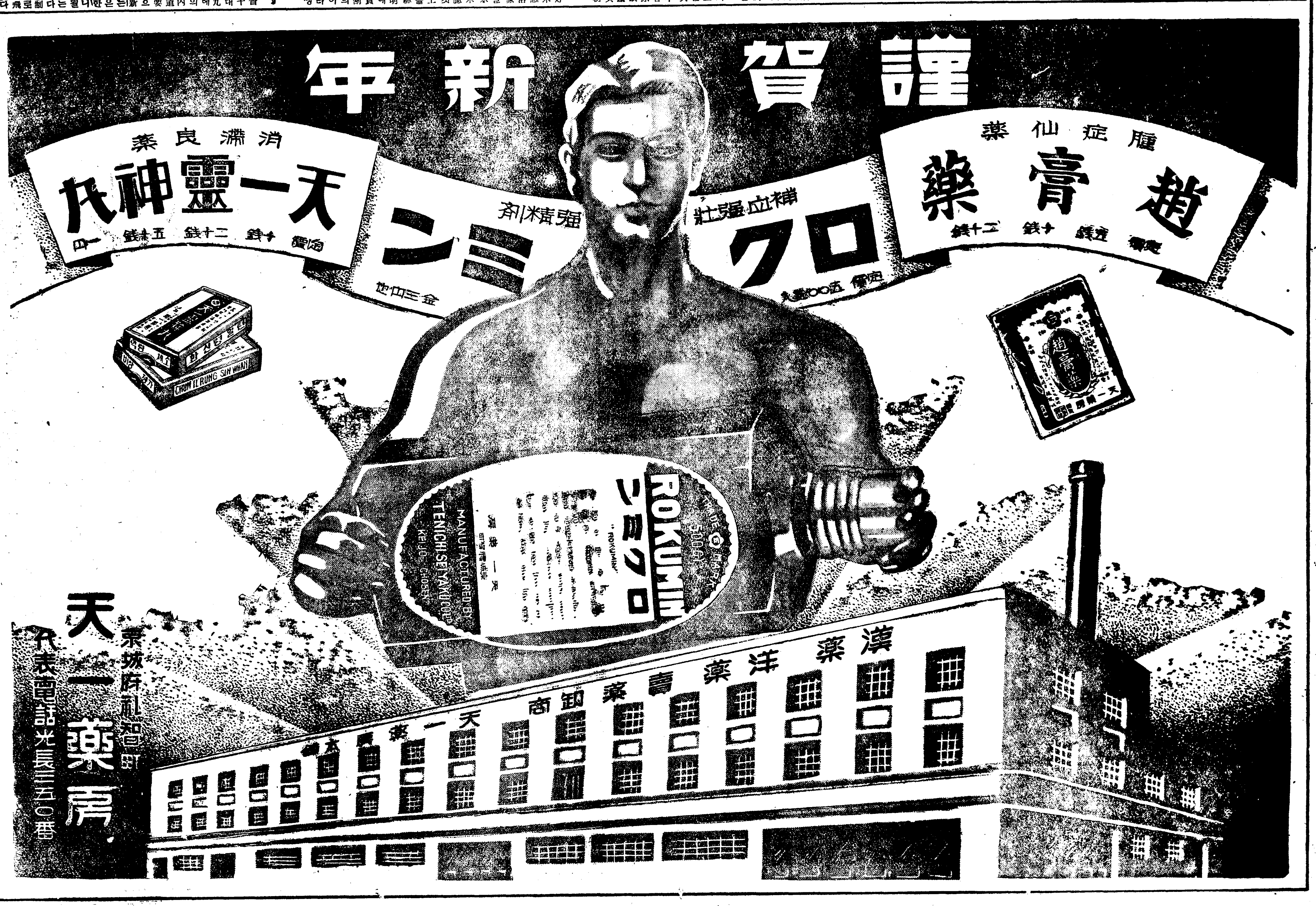
이러한때에 今年度 朝鮮米의 移出力은 一千百萬石가량이라고 豫想되고 잇스므로 지금까지는 出廻不足에依한 輸送不圓滑과 叺不足等의 苦痛으로 移出이不振狀態이엇스나、越年後는 차츰 이것이 緩和될에따라 移出도原狀에 回復될것이요 買上도 政府의 三百五十萬石이란 豫定數으로보아 적어도 二三回는 잇슬것이니 高米價와 豐作으로朝鮮農村은 比較的

潤澤

할을엇케될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好條件에 잇스면서도 所謂 米山代에入하야 換金賣物이 急增하게되면 一時的이라도 暴落을 憂慮가 업는바아니니 農家로서는 이點에 留意하여야할일이어니와 이와同時에 政府의米穀統制法、缺陷策等을들어 米價高抑制는 困難할것이라는 臆測下에 過當한 思惑을 하는것도 官當할일이아니니 現在以上의 需給上革命이라도 잇다면몰라도 그러치안는限 最高米價線突破는 거의 不可能할것이 明白하기때문이다。이와가티볼때에 越年後의 米價는 結局 政府買上價 即 最高米價의 下値一割附近으로부터 最高米價線까지의 高米價線內에서 一高一低를보여다가 植付期以後의 年事에따라 또 騰落을 그릴것이아닌가 생각된다。

未曾有大豫算
國防擴充中心
明年度는一層膨脹

昭和十三年度 朝鮮總督府豫算總額은 四億一千六百三十萬圓으로 施政以來 엇지보지못한 大豫算으로 昭和十一年度實行豫算과 追加豫算을 合한 三億二千九百餘萬圓을 超過하기 八千七百餘萬圓의 激增을示하엿는데 비록 朝鮮財政이時代推移에 伴하는 歲入增加와社會的施設擴充에必要한 歲出增大로 逐年增加傾向을 밟어왓다고는하나 今年에對하여 갑작이 一大膨脹을 보이게된것은 朝鮮의 特殊事情도事情이러니와 그보다는 國防擴充計畫을 目標로한 三十億圓에 到達하는 尨大豫算을세우고 財政經濟가 所謂 準戰體制로 非常時體制로 移行하게된 中央豫算의 飛躍的膨脹이 直接間接으로 影響되엇든것이 事實이다。이 豫算膨脹에伴하는 歲入의增加는 勿論 租稅의 增收、鐵道益金增大、專賣、森林事業等의 收入增加、煙草價引上、郵便料金引上等에 依하야 增收될것이나 歲出은 全面的으로 檢討해볼때에 京釜、中央線建設年度割三千萬圓을筆頭로 港灣修築計畫、茂山鐵鑛開發에 伴하는鮮鐵、燃料國策、棉花綿羊國策 其他國防에差한 交通通信의整備擴充 災害復舊及 恒久的對策을爲한治山治水의積極化 其他敎育産業 司法 警察各般에亘한重要施設을 國策的見地에서全面的으로 解決하려는 計畫이包含된것이니 朝鮮豫算의 膨脹도 亦是 非常時局에 對處하기爲한 國防豫算이 그中心이엇든것이 事實이다。이것은歲入이 經常部에잇서서 前年度二億六千九百九十九萬圓으로부터 三億二千八十萬圓으로五千八十一萬圓의增加를 示하엿슴에도 不拘하고 臨時部에잇서서 公債金을 前年度의三千一百六十二萬圓에서 六千五百萬圓으로 三千三百餘萬圓增加시켜서까지 豫算을 膨脹시키지안흘수업섯든 事實로도 그一面을 說明할수잇는가한다。그러면 이膨脹豫算으로서도 一般文化의向上 産業開發 敎育의 普及擴充 農山漁村의振興等을爲한 經費가 比較的少額이어서 豫算의均衡이서지안앗다는 遺憾된印象을 주게도 된것이나 元來가 時勢에應키爲한 國策的施設에重點을두고 編成된 豫算으로 非常時局突破를爲한 不得已한措處엿스니 이豫算의特徵도 여기에잇슨 것이다。이豫算을實行에옴긴지 半年이못되어 支那事變의 勃發로國家의 財政經濟는 準戰體制로부터 戰時體制로 飛躍하게되엿다 이로말미암은 朝鮮財政의 特別한變動은 아직 업섯다하나 事變이 長期에亘함에따라 朝鮮의地理的重大性도加하야 國防的施設擴充은 時急하게要望될 에따라 明年度以後의 豫算은 一層 國防色이 濃厚하게될것도 豫想되는데 어제朝鮮總督府에서 中央에提示한 昭和十三年度豫算內容을 들어보건대 그要求總額은 實로五億二千九百萬圓의 巨額으로 前年度에 比하야 다시 一億九百萬圓의 豫增을 示하엿스며 그經費內容은 主로國防上要求에基한 道路鐵道施設及茂山鐵鑛開發에要하는 經費로 全然 國防色으로 칠한 感이잇다고한다。新規要求全部가 承認되리라고는 期待키어려워 多小의 變動은 잇슬것이나 國防上必要에基한 經費는 削減도 至難할것이니 新規要求의거의全部가 容認될 것이라고보아 五億圓臺突破는 豫想되리라고 觀測되고잇다 이리하야 平時에서 準戰體制로 準戰體制에서 戰時體制로 移行함에 朝鮮財政은 逐年 飛躍的膨脹의一路를 밟게되엿다



統制經濟로 大變革

李 健 赫

明治維新以來 資本主義的 自由經濟로 發達해온 日本에잇서 昭和十二年은 準戰時體制에서 戰時體制로 急速히 移行되어 大變革을 招來코말엇다。

二·二六事件을 契機로한 內外政治經濟情勢는 國防充實을 第一義로하게되고 經濟界도 槪念的이나마 所謂「非常時」란소리에 차이어 經濟組織이 國防一線에 沿해서 統制經濟로의 變革過程을 밟엇다。이것이 法令으로나타나기 시작한것은 一月八日의 輸入爲替許可制 實施이고 이爲替管理를 비롯하야 金蓄積政策까지 放棄케되어 一躍非常時色을 濃厚케하더니 七月七日의 支那事變勃發로 이準戰時體制가 戰時體制로 一變하야 이에 統制經濟는 本格的으로 强化된것이다。

事變後열린 七十一、二議會는 戰時財政 經濟體制確立의 基礎工作을 하얏는데 먼저 財政에 잇서서는

▲北支事變費(七十一議會)五億、支那事變費(七十二議會)二十億의 追加豫算이 實施되어 十二年度一般會計豫算二十八億을 加算하면 五十四億圓이란 空前의 大豫算이고 其中三十四億圓은 赤字公債이엇다。

生産力擴充에서 戰時消耗로 急轉한만큼

(1)戰爭目的을 達키爲하야

(2)國民生活을 安定키爲하야

모든 經濟部門에 亘하야 或은 自治的 或은 權力的統制의 손이 擴大되고 生産 配給、貿易의 全面的統制經濟下에 [illegible]을 遂行하얏다。

×

七十一、七十二議會를 通過한 臨時資金調整法、輸出入品臨時措置法、軍需工業動員法其他非常時經濟立法은 「돈의經濟」에서 「物의經濟」로 移行한것을 意味한것으로 이非常立法이 全經濟部門을 席捲하얏스며 이變革은 南京이 陷落된今後도 停止되지안코遂行되고잇다。

準戰時體制下에잇서서의 國防充實로도 生産力擴充이 必要하야 物資需要가 急增되어 急速한 供給不足을 外 [illegible]

[illegible]

以上과가티 事變에依한 [illegible]

公債消化에 全力

日銀機能變革·興銀時局貸出
臨時資金調整法發動

金融

逐年膨脹되고 不均衡해가는 財政은支那事變勃發로 一變하야戰時財政으로 [illegible] 라다를 겨를이업서젓스며 十二年度에잇서 三十四億의 赤字公債를 發行할豫定이다。

十二年의 金融界는 過渡的變態的 樣相을極히明瞭히 示하얏스니 即低金利政策은 公債消化가 必要한때문에 絶對한金融政策 — 그것은 生産力擴充一般化와株 [illegible]

起債

依計過渡的 金融梗塞과 增稅負擔 威로 未曾有의 不振狀態이엿다 馬場增稅案發表以來 公社債利子의 綜合課稅에 依하야 起債基準이 不明瞭케되어 起債界가 開店休業이재 十二年으로 越年한後 一月初旬부터 三月初에亘하야 若干明朗色을보이다가 四月에는 再停頓되엇다。

十二年의社債市場은 生産力擴充政策의實行에 [illegible] 日銀機能의 百八十度의轉換이라할것이다。

金利

生産力擴充資金의 需要增加를 中心으로한 貸出增加는 預金增加率을 上廻하야 手許資金인 預金超過額이 窘塞해젓스니 全國普通銀行勘定을 보면 如左하다。

◇全國普通銀行勘定 (單位百萬圓)

	預金	貸出	預金超過
△十一年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이가튼 銀行資金涸渇에 依하야 誘致된金融逼迫은 — 八月에事變 [illegible]

擴大에依한 金融不安과 相俟하야 判然해젓는데 — 어떠한 結果를 金融市場에 齎來하얏는가? 먼저金利反騰을 나타냇다。

◇金利推移 (三菱研究所調查 日步最低一日平均)(東京當座 東京商業 手形割引)

十一年平均	[illegible]	[illegible]
同 十月	[illegible]	[illegible]
同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同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十二年一月	[illegible]	[illegible]
同 二月	[illegible]	[illegible]
同 三月	[illegible]	[illegible]
同 四月	[illegible]	[illegible]
同 五月	[illegible]	[illegible]
同 六月	[illegible]	[illegible]
同 七月	[illegible]	[illegible]
同 八月	[illegible]	[illegible]
同 九月	[illegible]	[illegible]
同 十月	[illegible]	[illegible]

政府및 日銀의 必死的緩和工作에依하야 短資引締는 八月을絶頂으로 九月에는 要態的緩慢狀態까지 現出하고 十一月末에는 翌日物八厘一本으로 平穩越月하얏는데 長期金利는 一向緩和되지 안코金利全體로서는 昂騰을繼續코잇다。

金準備의 評價變更

正貨準備 八億圓!

750瓩=290瓩

[illegible]

戰時豫算으로 大跳躍

五十四億七千萬圓!

事變費만 二十五億六千萬圓

摩擦相剋批判을超越

拂込總額約廿億

臨時資金調整法 出動直前의 實績

金融界의 銀華에 封切映畫된것은生産力擴充의 大宗이엇스니 過去五個年間의 拂込資金額을 全年보다 約四割의 增加를 示하얏고 十月以降年末까지의 拂込豫定額을 加算한 十二年度의拂込推定額은 十九億五千五百萬圓에 達하야 比前年一割倍增의 旺盛이다。

七千七百萬圓의 限外發行하야 이것을 六月末에比하면 二億三千六百九十萬圓의 大增加이엇다 十二月二十三日繰越에는 日銀兌換券發行高가 드듸어 二十億圓臺를突破하야 昨年記錄을 깨드리고 [illegible]

[illegible]

爲替

戰時에가장必要한것은 무엇이냐하면 飛行機、鐵、大砲가튼 武器인데 이軍需品의原料(鐵、石油、金屬類等)를外國으로부터 輸入하는處地에잇는 我國으로서는 그갑으로

一、金을現送하던지

一、輸入보다輸出을만히하던지

一、貿易外의海外收入을만히하던지

一、外國으로부터 빗을내던지

해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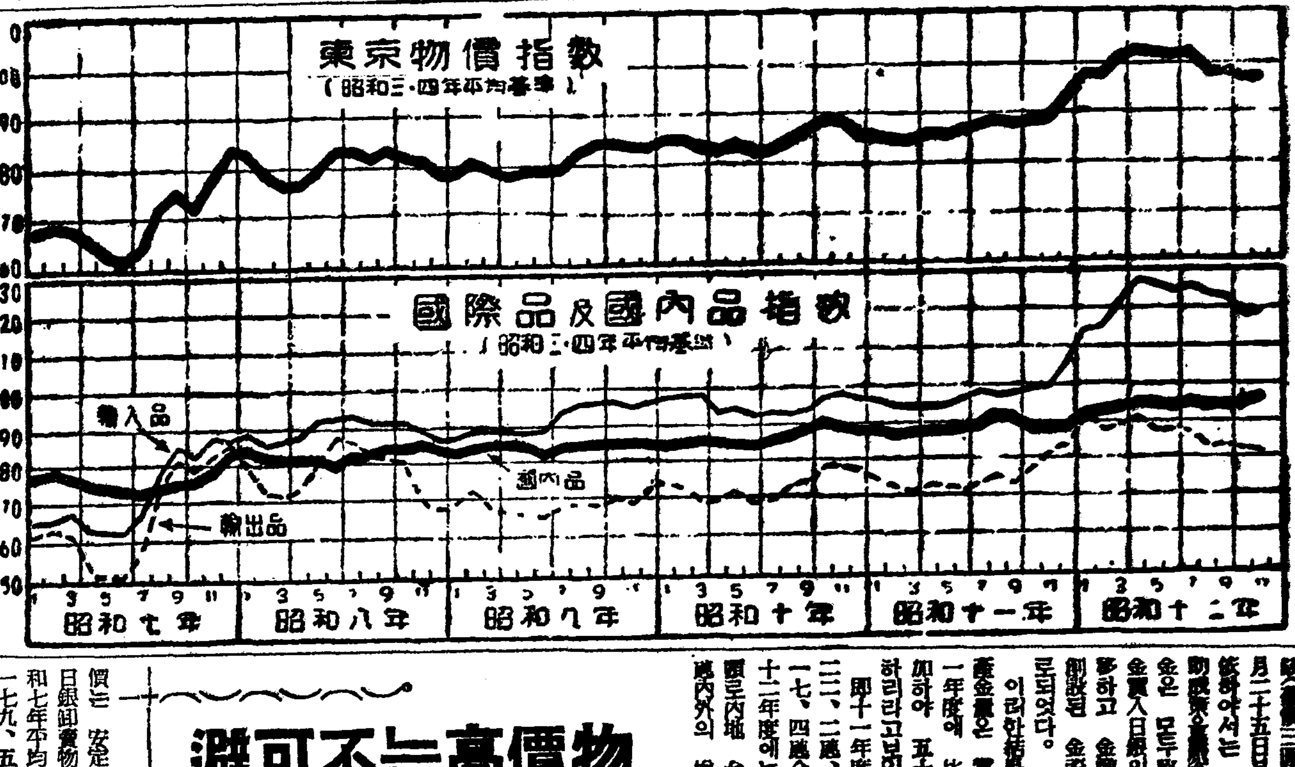
[illegible]

圓貨의 補强工作

金蓄積政策放棄·産金奬勵

一志二片基準死守

[illegible]



原料品中가장重要한 棉花、羊毛、[illegible] 以上과가티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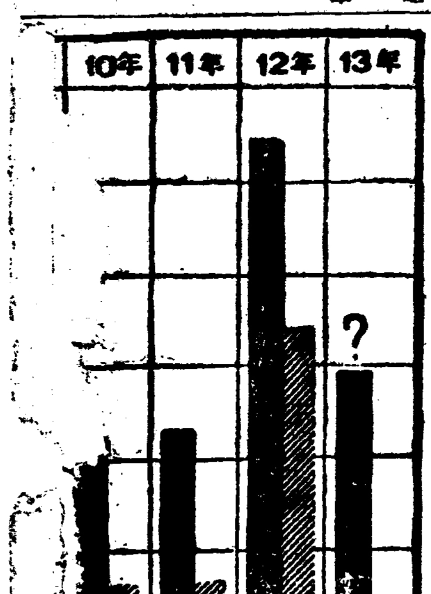
物價高는不可避

政府의抑制策奏効難

[illegible]

◇歲出豫算額과公債發行高 (單位百萬圓)

	豫算	公債
昭和五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六年	[illegible]	[illegible]
同 七年	[illegible]	[illegible]
同 八年	[illegible]	[illegible]
同 九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一年	[illegible]	[illegible]
同 十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가나다順)

全南道會副議長 湖南銀行專務 金信錫
全南道會議員 光州府議員 內山重夫
全南道議員 光州府議員 松井鶴松
全南道議員 光州府議員 池正宣
全南道議員 光州府會副議員 坂口喜助

光州府黃金町 朝鮮料理 和洋料理 春木庵 支店 光州無等山別莊 電話三六〇一番

光州府不動町 朝鮮料理元祖 新光園 主 金鍾林 電話五二六番

全羅南道各金融組合
全羅南道各産業組合
朝鮮金融組合聯合會全南支部

光州府廳職員一同

光州金曜會

○商談の御用は先づ當館へ!!
全羅南道商工奬勵館
○お土産には是非道産品を!!
電話五二四番

光州府湖南町 合名會社 鶴坡農場

全羅南道廳 高等官食堂員一同

光州府本町五丁目 唐寶婚具 南相閏家具店

光州醫師 [illegible]

株式會社光州劇場 代表取締役社長 崔善鎭 專務取締役 趙圭琳

光州府大正町 大興農場 電話一一三番

光州府社町 孫鍾彩

光州府楊林町 合名會社 楊波農場 電話二五一番

全南酒麴株式會社 代表取締役 池宇宣 光州府昭和町

光州府本町 光州商工會議員 池相燁 電話二六八番

光州府湖南町 光州商工會議員 崔漢泳

光州府須奇屋町 光州商工會副會頭 金喜誠 電話八二一番

光州府本町四丁目 金城商會 主 金漢燮 電話一四二番

光州府本町 天一藥房支店 長電話九〇三番

全南光州驛前 精米業 材木業 不二精米所 主 吳東基 長電話 三三七番

光州府明治町 合資會社 全南精米所 代表者 金容成

光州府明治町四丁目 齒科專門 主 朴 [illegible]

光州府本町 黃泳洙自轉車舖

光州府本町三ノ三 光成洋服店 [illegible]

光州府明治町 東洋堂樂器店 電話二〇一番

土木建築請負業 太平組 全南光州大正町 電話八三六番

光州府明治町 丸太運送店 電話一六六番 [illegible]

光州府大正町 金炳宅

光州府大正町 具哲祐

光州府社町 鄭潤植

光州府明治町 光州商工會議員 池昌宣 長電話二二三番

光州府明治町 光州府議員 尹燁

光州府明治町 辯護士 光州府議員 宋和植 電話五〇五番

光州府大正町 辯護士 光州府議員 鄭文謨 電話六六六番

光州府大正町 辯護士 金膺模 電話三六六番

光州府明治町四丁目 辯護士 法學士 申淳彥 電話三三九番

光州府明治町 辯護士 李圭正 電話三一番

光州商工會議所

光山郡廳 職員一同

光州郵便局 局長 衛藤克己 職員一同

光州稅務署 職員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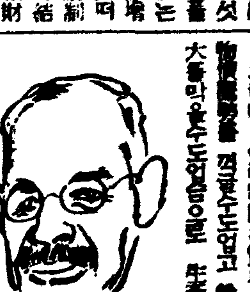
光州公立中等學校長一同

財政經濟
…서 戰時體制로

比事業을 세웟든바 이를財政은 어에對할만한 準戰時的經濟施策에對하야 아모準備가업섯기때문에 失敗하얏다 即臨時議會를 開催하고 物價는暴騰되엇스며 豫想輸入이 激增되엇고 公債는發行價格以下로떠러젓다 이에政府는 不安人氣를 더하야 結城財政이이에代하얏바

「生産力水準을넘는 膨脹財政」은不可하다하야 豫算膨縮에努力하얏스나 그膨脹된 豫算이란것이 追加豫算을 合하야 依然히 二十八億七千二百萬圓이란 것으로 겨우 一億六千八百萬圓을 減縮함에지나지아니하고 國防豫算은四…약다。

그러나 이러한程度의修正으로는 物價騰貴를 꺽거볼수도업고 輸入增大를막을수도업슴으로 生産力擴充을내세웟스나 經濟統制를 避하는關係上 具體的計畫이업시 끗나스고 賀屋財政이登場하야 財政經濟計畫을 根本的으로 解決코저하얏다。



賀屋財政이내여건 所謂財政三原則이란것은
一、物資需給調節
二、國際收支適合
三、生産力擴充
으로서 그具體化에 손을대자 말자 七月七日支那事變勃發로一擧戰時財政으로 移하게되엇스니 지금까지의 支那事變軍費豫算은

一般會計 五一六、四四四
特別會計 六八七
三、第七十二議會追加豫算
一般會計 九、一五五
特別會計 七一三
臨時軍事費 二、〇二二、六七一
合計 二、五五九、八六八

右歲費支出에 依하야 一般會計歲出豫算은 三十四億五千百八十九萬二千圓으로되고 이에다가 臨時軍事費特別會計二十億二千二…

通貨大膨脹

資金調整法發動에至한 一連의 金融對策과 그後의積極的運用을 要約하면
一、生産力擴充資金의潤滑化
二、金利逆轉阻止
三、公債價格維持와消化促進
의三目標에向하야 運用한것인데 日銀의 果敢한貸出과 政府資金의撒布를通하야 모든것이 日銀의信用膨脹에依하야왓다。

日銀의 貸出額은 九月末에 至하야 臨時資金調整法 出動直前인九月末 拂込資金을보면 如左하다(單位百萬圓—比率%)

年次	軍工業(A)	平和產業(B)	合計A、B	比率
昭和七年	四〇	一八六	二二七	一六・八
同八年	三三	四五三	四八六	六・八
同九年	一〇五	四三〇	五三五	一九・六
同十年	一六三	三三二	四九五	三二・九
同十一年	一七八	四〇一	五七九	三〇・八
同十二年一—九月	三一五	三七八	六九三	四五・七

十二年九月末까지에이서 拂込(株式新規計(適計))總額은 十四億八千五百萬圓에 達하야 十一年

輸入禁壓을斷行
輸出入品臨時措置法發動!
貿易總額七十億突破

貿易

十二年度의 對外貿易은 十二月中旬累計로써 보면 輸出三十一億九千二百萬圓
輸入 三十八億三千五百萬圓
合計 七十億一千八百萬圓
入超 六億四千二百六十七萬七千萬圓
으로되어 남어지 一旬을合해도 十二年의貿易入超는 六億四千萬圓程度일것이다。

一月以降十二月中旬까지의 輸出入累計를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如左하다 (單位千圓)

	十二年	前年比較增加
輸出	三、一九二、六六六	三五八、一〇八
輸入	三、八三五、〇三三	一、〇三三、〇二三
輸出入總額	七、〇二七、六九九	一、三八七、一三一
入超額	六四二、六七七	四九六、九〇五

이제若干의 重要商品에 對하야 十二月中旬까지의 實績을보면 綿織物은 數量에잇서 一%餘의 減少에 不拘하고 金額은 八千七百五十萬圓(一九%)가 增加하고 生絲는 數量 一千七百九十萬斤(三%)減에 對하야 金額은 二千五百七十萬圓(七%)의 增加로 이는 單價昂騰과 高級品賣込에 依하는것으로보이고 또 纖維諸食料品은 一千六百萬圓(二三・三%) 機械類는 一千三十萬圓(一五・三%)가 各增加하얏다 다음에 輸入은 總計十億三千五百萬圓의增加인바 그中 棉花及羊毛의 輸入增加額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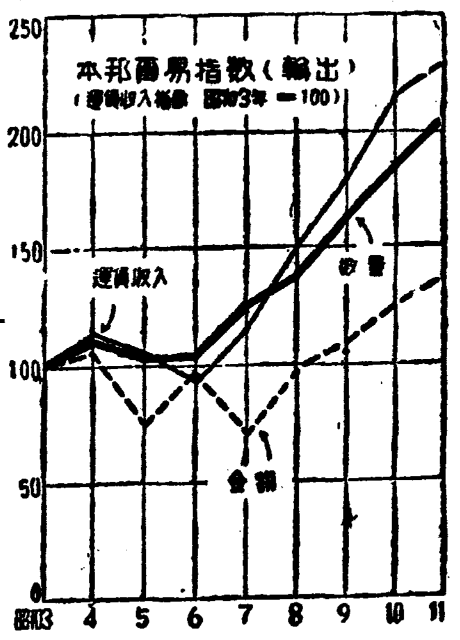
	十二年	十一年	比較增加
棉花	八四七、三一三	[illegible]	[illegible]
羊毛	二九〇、一四三	[illegible]	[illegible]

따라 棉花、羊毛以外의 商品의 輸入增加額은 九億五百萬圓으로되는바 單價의 昂騰에依한 輸入金額의 增加를 輸入總額의 二割前後로치면 純全히 時局關係에依한 輸入增加는 一億五千萬圓乃至二億圓가량으로되어 比較的少額이나 이로써 곳 今後量 豫測함은 問題이다 그리고 十二月中旬의 輸出入額을보면 輸出은 前旬보다 百九十萬圓(一・五%)增、前年同期보다 三百九十萬圓(四・七%)減、一月以降累計는 前年同期보다 五億三千八百萬圓(二〇・三%)增、輸入은 前旬보다 五十九萬圓(〇・八%)增、前年同期보다 一千百七十萬圓(一三・一%)減、一月以降累計는 十億三千五百萬圓(三七%)의增加이다

總額七十億圓突破나 入超旣巨大로나 十二年은 貿易史上空前의 일로서 이것은 要컨대 我國이 內外情勢의 要請하는바에 依하야 自由貿易政策은 그殘命이 꺼지고 貿易國家管理에 突入하엿다。

當局이 輸入超過 累增을阻止코저 萬策을다하고 奮戰한데對하야 民間關係業者도 어떠케해서 海外物資를 入手할가 晝夜의 區別이업시 뛰어 相剋相에 十二年은지나갓다。 이貿易을 國策코 政府와國民이 術策을다한 攻防戰은 奇觀이엿고 深刻하엿다。

國防充實에 便乘한 彪大豫算案은 物價騰貴를 豫想한 思惑輸入의殺到를 招來하엿스니 所謂 馬場財政의 所産인 國防充…



支障을 齎來한 他面 不足物資의 增加는外的으로는 輸入의增加—國際收支의均衡에對한 重大不安으로 나타나서 臨時的이나마 非常措置、手段에依케된것이다。所謂不要不急品의 輸入制限又는 禁止 重要物資의 輸出禁止와 今次事變에關聯하야 國民經濟의運行을 圓滑히確保키爲하야 前記輸入制限으로서 생기는 弊害防止或은軍需工業動員法運用上의 必要로부터 러생기는 各種生産으로부터 消費까지 一貫한 需給과配給에對한 高度且廣汎한 統制權의國家附與를目的으로한『輸出入品臨時措置法』에關한法律及關係法案』이 七十二議會에서制定되엇다。

이에依하야 我貿易은事實上國家管理體制에入한것인데 이제此等法律과 關係規則의實際施行乃至經路를보면如左하다。

八月十三日에 貿易調整法과貿易組合法이公布되고 組合法은九月十日、調整法은 二十七日에各其施行되엇다。

또臨時措置法은 九月十日에公布되어 即日施行되고 그規則(即輸出入品의禁止又는 制限에對한 實際的運用細則)은 十月十一日에實施되엿다。措置法에依한 統制命令은 十月二十八日에『스테ー플 파이버』等의強制混用命令을 비롯하야 同日五十廠以上의 鐵鋼使用의許可制及製鋼制에對한 節約命令 公布(同二十日施行) 同二十八日

開始한것이다。그러다가 支那事變이 이러나 正面으로 貿易統制한것이다。

一月八日의 爲替許可制採用은 이에依하야 豫想輸入取締와 海外에서의不當한 資本逃避를防止하야 써 十一年末 二片台를 割한 本邦爲替의 安定을 圖하고 對英一志二片水準을 保持하야 對外信用의 『生命線』을 死守할 旨를 聲明하고 이에 國家經濟의『바로메ー타』라고 稱할 爲替의維持와 一幕이열럿던것이다 即 圓貨의 全般的衰弱에 隨伴한 國際貸借의 惡化 物價昂騰、彪大豫算의 遂行等을 最少限度로 끄치게하는데는

爲替期限化하는 同時에 許可限度額從來의 一個月三萬圓에서 一擧一千圓으로 내리엇다。馬場藏相의面目은 이로써 不明하게되엿고 國際收支適合策이 局面打開의 難航에 허덕이든판에 事變이勃發했다

이보다압서 第七十一議會에上提코저 立案했던經濟立法 (그것은準戰時體制의最後工作)이 事變議會로 變한 特別議會에서可決되고 政府는 國際收支適合策에對하야 二個의 包括的獨裁權을 掌握하엿다。

即 金集中强制權과 貿易統制權이 그것이니 前者는產金法과 共히 金現送 爲替對策의 遂行을圓滑케할 金評價變更에 伴한 五法律(金準備評價法 金資金特別會計法 日銀金買入廢止 鮮銀臺銀의 保證準備限度擴張)外國爲替管理强化에伴한 二法律 (無爲替許可制 正金副頭取增員)이요 後者는 貿易及關係產業의 調整에 關한法律인바 이러한 經濟立法의制定은 戰時體制에의 軌

二億을 超過한 我在外資金이二…

赤字公債만 三十四億圓

滿洲事變은 我財政史上 一大劃期이엇다。即 事變前年三千八百萬圓에 不過하얏던 赤字公債가 六年에는 一億二千萬圓又 翌年에는 一億六千萬圓八年에는 七億五千萬圓으로 大膨脹이 되엿다。그後 滿洲事變과 時局匡救工作과 財界好轉에 依하야 九、十、十一年의 三年間은 現狀을 維持하얏다。그런데 二・二六事件의 勃發은 財政에 重大한 變化를 與하고 所謂健全財政은…

部赤字公債로서 公債發行豫定額은 一億三千四億圓의 巨額이다

十三年度豫算 軍事費는얼마?

十三年度 一般會計豫算案은 大藏省의 戰時財政의 基本方針에依하야 二十八億六千八百萬圓으로 十二年度 當初成立豫算의 範圍內에 止케하얏스나 …은 十三年度 歲出豫算編成上 一大收穫이라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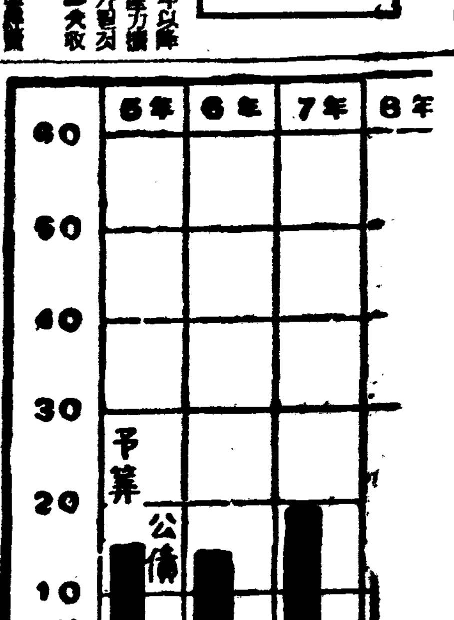
[illegible]

十二年八月二十四日 閣議決定에依하야 再次編成方針을 追加하이다。

十二年度 …等으로부터 …의 財源은 十三年一月에 나타날 臨時軍事費는 三十七億圓에 達하는데 大藏省 …

一、支那事變費 長期에 亘하야 …
一、十三年度內에 事變이終了되고 …
一、海外投資、外國債…

戰時財政은 다시 戰後財政— …



金買上量
五十噸突破

十二年以來 政府의 積極化한 金集中政策에 順應하야 今年內政府 (產金法以前은 日銀)金買上量은 相當히 增加가 豫想되엇는데 十二年一月부터 現在까지의 實績과 이에 基한 十二年末까지의 推定量을 合計하면 買上量이 五十噸을 突破하야 買上價格으로 約一億九千萬圓에 達한다。

一億九千萬圓

即政府는 國際收支均衡、爲替水準을維持키爲하야 十二年三月

十二年中

正貨現送高(七月까지)

	純量(瓩)	邦貨換算額(千圓)
三月	三〇、九六九	五四、三四八
四月	一〇、〇六六	三九、四三三
五月	一四、三三一	五五、〇九一
六月	三六、四四四	一〇五、一四〇
七月	一九、八二三	七八、〇四四
合計	一四四、六三〇	三一九、六四六

對美爲替內地市場最高最低

	最高 志片	最低 志片
昭和十一年中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昭和十二年 一月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八月	一、二	一、二
九月	一、二	一、二
十月	一、二	一、二
十一月	一、二	一、二
十二月	一、二	一、二

物價도 健全한步調이엇다。그러나 三十億의 馬場財政、減하얏다고는하나 二十八億의 結城財政으로써는 果然生產力이 어떨가疑問이 不無하야 이곳에 思惑買가 續出하고 物價大騰貴이된것은 當然한 趨勢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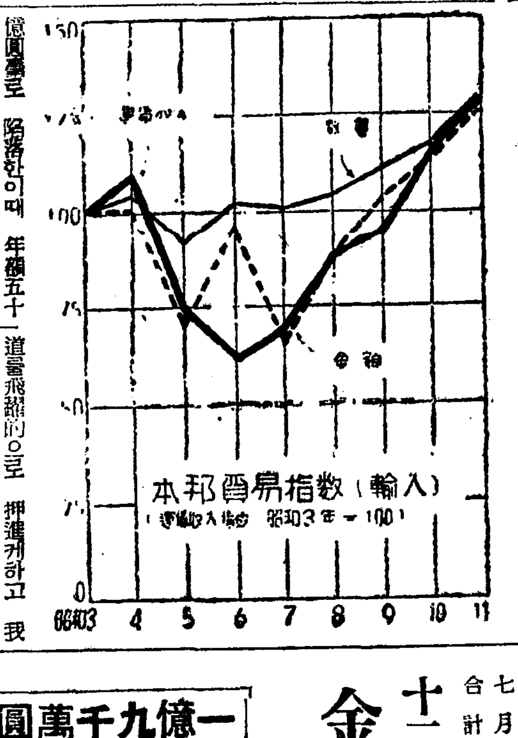
生產力과消費量的고키爲하야結城藏相은『生產力擴充』이란『슬로ー간』을내걸엇는데 今日生產力을 擴充코잇는것이軍需品工業이오 그完成이 容易치안코 完成된다드래도 그生產이 一般商品과달는以上 이에依하야 物價가 低落되리라고는 期待할수업다。

何如間 年初輸入思惑을 防止키爲하야 爲替管理令이 施行되어 一應 輸入思惑防止目的을 達하엿섯스나 그反對로 國內商品에의 思惑이 擡頭되고 그것을 防止키爲하야 所持在庫品調查 賣惜防止를 策하엿는데 그顯著한 例는 鐵鋼價格統制이엇고 物價對策機關으로서는 林內閣下에臨時物價對策委員會가 設置되고民間에서도 政黨方面을 비롯하야 日商 全產聯等의 各經濟團體가 이에協力하야 그對策에 官民이 努力하엿다。이러는동안에 思惑의自然的鎭靜 政府의 部分的應急策等이 奏効되어 上半期의 物價는 그後低落을 示키에 至하얏던것이다。

그러나七月以來의 支那事變으로 準戰時經濟는 一步를 進하야 戰時經濟로 突入하고 物價問題는이에 新藏相으로써 나타나는 即戰時經濟政策下에 잇서서는軍需資材를 確保키 爲하야 努力을 集中하여야하고 그러기爲하야서는資金 原料等의 供給에잇서軍需工業에 優先權을 주고軍需의莫大한 消費量을 充分히補하여야한다。資金調整法 輸出入品臨時措置法等은 모다 이때문에 생긴것으로 이結果 平和產業製品의供給은 스스로 制限되지안을수없다。이러하야 物資의 供給은 需品과 平和產業品사이에 跛行狀態를 招來하고 軍需資材가 豊富한데 反하야 消費資材는 不足을 難免하는結果 消費資材의 價格上昇도 不得已한情勢이다。이에 暴利取締令의 再登場을보앗고 一方生產과 消費의間隔을 埋하는 方策으로서消費節約이 强調되엇다。特히國際收支의 觀點에서 不足한 棉花、羊毛、其他平和產業의 原料에對하야서는 더욱强調되고 이에消費節約이 物價對策의 重要한支柱로서 登場하엿는바 이消極策으로 供給不足을 調節하자는것이면 物價는 上昇할수밧게 업는것이며 棉花、綿絲、綿布、고무等에最高價格設定、고무、棉花、綿絲等에 切符制度採用等 價格統制配給統制에까지 物定對策의 손이뻐치어잇다。

東京小賣物價 十二月最高位

東京商工會議所調查=十二年十二月의 東京小賣物價는 八月以來逐月騰貴하야 十二月도前月보다 二分二厘가昂騰되어 十二年最高位를 示하엿다 即十五日現在小賣物價指數(昭和五年基準)를보면 十二月은 一二〇、六으로最高가되엇다



中小產業部門

矛盾과相剋包藏

此等은 그資本과 技術과 有力한 背景에 依하야 關聯性을가진 適宜한 他產業部門으로 轉換乃至進出이 어떤 程度로 可能하며 環境에依해서는 代替性、伸縮性、豊富한勞働力의 犧牲下에 그唯一한 目標인生存과 利潤의 確保獨占을企圖할수도 可能하다。

그러나 時局下에 가장 深刻한 影響을받고 沈衰해지는것은 所謂 中小의 此種產業部門에잇는 業者이니 그經營規模는 中乃至小이어서 그雙가는 資本或은 把持한 技術로 單一함으로 他產業으로 轉換키가 容易치안흔것가트나 決코그러치안흔것으로 原料等은 轉換한 示顯이업다。具體的으로말하면 軍需關係로의 轉換은 中小産業의 設備、經驗等乃至技術로서는 到底히 充分히 軍需에對한 需要를 滿足시킬수가 업고 그適應의 範圍도 極히 적은 것이라 이에잇서 戰時體制下의 產業界가 가진 深刻한 若干의 矛盾과 相剋은 漸次로 그相剋性을 顯著하게 示키에 至하는 契機를 胚胎하고 있다

近代戰爭의 極度의 複雜化와 高度의 科學化가 齎來한 國家의 全資源 全產業力을動員한 所謂 經濟戰에의 參加—그것은 十二年度의 日本產業界가 처음으로 經驗한 未知의 世界이엇는데 產業部門에 果然 國策의 線에 沿하야所期의目的을 다하얏는가? 그러면 所謂 經濟戰의 前衛인 企業形態의 缺陷으로 目的을 達치못한部門이 업지안헛다。

또『가지지안흔』때문에 從來 그 原、材料를主로서 外國產輸入에 依하야 求하던 特定產業이 貿易統制强化에 依하야 原、材料取得이 잘안되고 그때문에 오래동안 開拓하고 培養해온 海外市場을喪失할 危機에 瀕하야야되는 此種 所謂『時局에依하야 影響을받는產業』에는 綿絲、棉花의 配給統制에依하야 或은 價格公定制實施에 依하야 不自由를 歎하는 紡績業等의 大規模企業도 豫示할수잇스나 …

全產業의業種變轉
生產力擴充驀進
軍需工業部門中心으로

產業

國內的으로는 一二六事件을 契機로한 政治圈內의 變革과 國際的으로는 日本을中心으로한 華盛頓、倫敦海軍軍備制限條約의廢棄에依한 世界政治經濟情勢의 變化에伴하야 一切의 經濟機構가 國防一線에 沿하야 轉換期로 變革됨을當하야 十二年의 產業界도 必然的으로그 全體的關聯下에 自由主義에서 統制主義 計劃經濟下로 相異한 運營過程에서 活動케되엿다 이것을 端的으로 象徵하면 軍需關係部門中心의 活動과 變轉이엇고 換言하면 一般的으로는『軍工業膨脹의移行』이그것이엇다 五十四億七千萬圓의 彪大豫算의 六割은 兵器一切 軍需用品軍需關係品을 購入키爲하야 編成된것으로서 이러케 放出되는 五十四億圓餘의 彪大豫算이 當然히 軍需關係 產業部門에 極度의 膨脹과 繁忙을 준것이다

이가튼 全產業部門의 流動乃至變轉은『生産力擴充』의『슬로ー간』中에 要約되어 產業界는 軍需工業部門을 中心으로 國際政治經濟情勢와 國內情勢에依한 戰時體制下의 轉換過程을 驀進하얏던것이다。

原、材料自給에
代用品工業企圖

產業界는 彪大豫算이 包藏한急激한 需要增大에 應키爲해서는 또 急速한 生產力擴充을 絶對 必要로하고 一層不足한 軍需資材에 應急的補塡을 不可避로 함으로 必需品의 輸入을 著增케하얏다。比較的 順調로 推移되던 貿易이 七億八千六百萬圓이란入超를 보것은 此等軍需資材或은 生産力擴充에 必須한 各種機械類、金屬材料、金屬非金屬을 包含한 各種鑛物等의 輸入累增의 結果이엇다

如斯한 貿易의 極度惡化는 當然히 國際收支의 不均衡을 急激케하고 大陸政策中心의國策遂行에 危機를 齎케하얏음으로 必要의 需給을 調整코저 年初一月八日 大藏省令으로써輸入爲替取組에關한 許可制를强化키에 至하야 次統制主義에의 隷從色彩를濃厚케하얏던것이다。그리하야 지금까지 比較的自由로 入手할수잇섯던 必要物資輸入이 許可制度로 制限되고 產業界는 必然的으로 그事業運營에 際하야一定指標下에 슨『計畫』에 依據統制케되엿다。

下半期에 入해서는 支那事變勃發로 當面의 應行하야直接『輸出入品에關한 臨時措置法』이 公布되고 必需品을 確保키爲하야서는 不要 不急品의 輸入을 制限或은 禁止키에至하얏다。그리하야 棉花、羊毛 等十餘種을 算하는 此等 臨時措置法에 擧示된 品種을 取扱하고 原、材料로서 使用하며 生產하는 各產業部門은 또 必然的으로 그企業經營에 未曾有의 變貌를 나타내게되엿다。例컨대 全產業部門에 王座를 占하고 輸出貿易界에 君臨한 紡績을 비롯한 纖維工業一般은 그原材料인 棉花、羊毛의 輸入制限에 依하야企業規模가 큰것은 鑛業界로 或은 代用纖維品製出로轉換코저하는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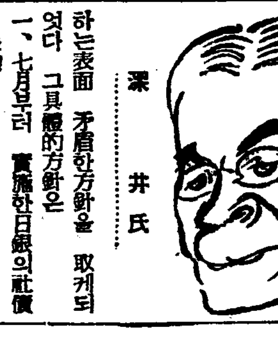
또 必需品의 生產力擴充을 遂行키爲하야 不要 不急品의 事業設備擴張 又는 新設을抑制코저 全產業部門을 甲、乙、丙으로分類하야 그新設、擴張等에 際하야서는 資金을 調整하야 物資의 需給統制를 强化한것은 以上에依하야 그經營을 規制하는 所謂 國策의 線에 沿하야 産業界의 擴充과 用品工業』의 確立을 圖하고 國內에잇는 必要 原、材料自給에 邁進코저하고잇다。

由來 日本은 各種 資源이 不足한 所謂『가지지안흔나라』로서 全產業界가『外國依存』에依하야 今日의 發展을 보는데 原、材料輸入中心主義가年初以來 漸次强化의 度를 加한『貿易統制』를 招來할 …

策임으로 內閣이 세번갈리엇스나 그方面어는大藏大臣이나 低金利政策을 明言하얏스며 公債發行條件도運轉치안햇다。그러나

一、生産力擴充政策에 要하는 工場設備의 改良과擴張資金의需要旺盛
一、滿鮮을 通한滿洲經濟開發注入資金依然不減
一、物價騰貴에 依한一般的商業資金膨脹等에依하야 金融이梗塞狀態에陷하고 金利도反騰傾向을呈하야 低金利政策과 市中金融情勢는 遊離해버리고말엇다。

이에다가 起債市場 停頓도一原因이엇는데 從來政府의 金融政策은 民間의餘剩資金을 吸收하야 退往『이플레』를防止키에 努力하던것이 結城 賀屋兩藏相의 金融政策은 公債消化를 主要政策으로 持續하는同時에 生産力擴充 資金의民間放出을 圖하는表面 矛盾한方針을 取케되엿다 그具體的方針은



一、七月부터 實施한日銀의社債金融
二、八月上旬決定한 日銀의貸出期限의內規撤廢及既發社債優遇等이엇다

그러나 如斯한大藏、日銀當局의公債消化策에도 不拘코 貸出金利가 反騰을示하고 民間銀行의所持가 窮塞한때에 잇서서는 圓滑한消化는 바라기어려웟엇다 그럼으로預金部 簡易保險局等의 公債保有增加를 圖하는一方 信託、生保、貯銀、地方銀行等民間金融機關에對하야 國策協力이라名目下에 公債保有를 强制하얏고 十一月에는 小額公債를發行하야 零細資金까지 吸收코잇는바 公債大增發趨勢에 잇서서 그消化는今後도 더욱 重大問題로되어잇다

式『뺨』으로서 [illegible]資金이 그方面에 吸收된 때문이엇다。當局은 이 社債窮塞이 生産力擴充政策遂行을 困難케 한다하야 이것을打開코저하엿스나 十二年中은 起債市場이再開되지못하고 그대로越年하엿다。

이에잇서서 興銀이時局融資에進出하야 事業界에 間斷업시資金을注入하야 生産力擴充計畫의遂行을 圓滑케하고잇는바 興銀의 時局産業融資額은 十二年十二月十五日까지에 總計四億圓에達하엿다。

十二年金融界에잇서서 特記할것은 日銀의 大變革이니 深井에서 池田으로 다시 結城藏相으로 總裁의자리가 바꾸이엇을뿐아니라 全金融機關의 中軸的統制的役割을 하게된것이다。臨時資金調整法의 實施에따러事業의 新設、擴張、改良의政府許可取扱의

光州府北町 梁在亨 朴夏昌 趙根元 李鎭範
光州府楓門町 奇近燮 丁判吉 鄭雲蘊
光州府明治町 光山酒造場 電話三五四番
光州府本町 光州府會議員 同商工議員 劉演相
光州府楊林町 高光表 長電話三四九番
全南光州明治町三丁目(裁判所角) 高級洋服調進 三好洋服店
光州府本町 酒食店 和信商會 主 朴昊洪 電話七四三番
光州府明治町四丁目 高級洋服 大昌洋服店 主 韓判五 電話九五八番
光州府本町 各種綿布 東亞婦人商會 光州支店 電話二三〇番
光州府本町三丁目 南海堂樂器店 主 崔相培 電話四五二番
光州府本町 各種綿布洋品入會貿易商 南昌商會 主 沈德善 電話二五〇番
全南光州本町 湖南ラヂオ商會 主 高麟錫
和順郡同福 吳鍾杓
光州府本町五丁目 光等寫眞館 電話九三〇番
全南和順邑 曺東淳
光州府明治町五丁目 全州館 主 文洪奎 電話六三一番
光州府杜町 金在珪
光州府楊林町大興堂藥舖 唯一無雙 一車膏藥
光州府明治町 金容鶴
光州府泉町一三一 合資會社 洋襪 無等工場 電話九一四番
光州府大正町 李範載
光州府本町四丁目 諸機械 諸發動機 精米機 ポンプ 其他各種 改良農具 合名會社 全南洋行 長電話四六五番
光州府杜町 孫祐彩
光州府須奇屋町 天一精米所 主 吳玉基 長電話八一八番
光州府西町 洪起膺
光州府柳町 金山精米所 主 文瑋錫 電話一六六番
光州府明治町 鄭弼煥

光州警察署 崔錫休
光州府大正町 朴琪柱
光州府明治町四丁目 司法書士 金昌逸事務所 電話五〇九番
光州府明治町 李必仲
光州府本町 金駿九
光州本町五丁目 綿布 德昌商會 金錫濟
成歡
成歡鑛業株式會社 支配人 篠田一郎 咸德瀾 鄭奎瑗
京釜線成歡驛前 成歡勸農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憲求 專務取締役 李榮周 商務取締役 金兌一 支配人 金英玉
朝鮮日報成歡支局 支局長 李榮周 總務兼記者 鄭榮保
京釜線成歡驛前 金元景 金萬根
和洋料理 月峯カフエー 主 韓永喆
京釜線成歡驛前 成一商店 金義景
京釜線成歡驛前 成歡藥房 主 吳殷泳
京釜線成歡驛前 司法書士 朴虎凡 電話七番
京釜線成歡驛前 李明煥商店
京釜線成歡驛前 和信金物店 主 李誠煥
京釜線成歡驛前 柳範九
京釜線成歡驛前 中山雜貨店 振替京城一七六八番

光州警察署 職員一同
光州纖維工業 俱樂部
全南纖維工業組合 理事長 橫山朝雄
光州府明治町 朴孝柱
京釜線成歡驛前 吉原洋服店 主 方千吉
京釜線成歡驛前 金元景
天安郡成歡面大弘里(貯水池) 大弘商店 崔哲煥
京釜線成歡驛前 金成商店 主 金順兆
成歡公立普通學校 校長 濱口三富
京釜線成歡驛前 成歡郵便所長 千綿十郎
京釜線成歡驛前 沈相弘
天安郡成歡面栗金里 李海老
成歡消防組 頭組居樹保太郎
天安郡成歡面 面長 洪貞幸